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이 힘든 시기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장 3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8월 22일 (토) 제 1790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디지털 연결/참여로 주님 따르는 제자 만든다!

Churchleaders.com, 코로나19사태 지속 '단순한 SNS가 목회 틀로 유용' 밝혀

역사적으로 대규모의 위기는 뉴노멀을 만들었다. '디지털 제자도(Digital Discipleship)'는 뉴 노멀이다. 급격한 도전에 대응해 교회, 기업 및 기타 기관이 수행하는 변화는 종종 장기적인 변형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대공황 이후 교회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공급자가 됐고 이 모델은 오늘날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한 9-11이후 긴급상황에 대한 계획과 훈련이 교회 안에서 증가했다.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비슷한 영향을 볼 것이다. 위기에 처한 미국인들의 영적 인도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유행

병으로 인해 교회는 회중을 섬기고 그들에게 도달하는 방식에 혁신을 가져야 했다. 전례 없는 '단절'의 시기에 사람들은 '연결'하는데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바나리서치' 소장 데이빗 킨너맨(David Kinnaman)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모든 SNS가 이제는 목회의 유용한 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한다(Churches Will Gather Again, But Digital Discipleship Is Here to Stay).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2개월 동안 교회가 채택한 '디지털전략'은 관계적인 연결을 새롭고 필요한 방식으로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다. 많은 주에서 모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아직 다시 모이고 있지 않다. 만약 모인다고 해도 한 건물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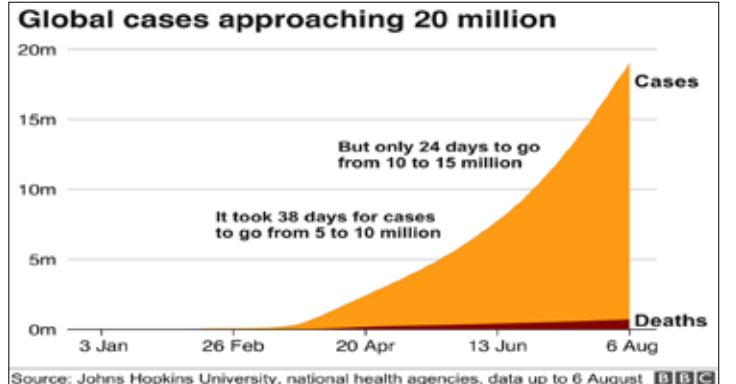


교회는 디지털 예배에서 놀랍도록 창의적이었고 그것은 주일예배의 라이브스트리밍을 넘어선다. 결혼학교, 알파코스, 청소년사역, 성경공부, 찬양콘서트 등을 위해 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소셜 미디어 채널을 확장해서 새로운 글, 비디오 및 오디오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기대는 이 위기에 의해 바뀌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언제든 다시 유행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많은 교회들은 다시 모이는 일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난달 나와 캐리 뉴호프(Carey Nieuwhof)가 진행하는 바나 처치 펄스 팟 캐스트(Barna ChurchPulse podcast)에서 오렌지카운티의 목회자인 비앙카 올도프(Bianca Olthoff)와 인터뷰를 했다. 그녀는 가상 서비스가 어떻게 교회지도자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교인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줬다. 4월 말에 기독교인의 3분의 2가 지난 4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 사실 온라인 예배 참석률의 급격한 증가는 초반의 흥미가 줄어들면서 적어졌지만 디지털 제자도와 디지털 예배가 코로나19가 바꾼 환경의 특징이 된 것은 확실하다. 최근 바나(Barna)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절반이 예배 재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이 해제되면 52%는 "곧바로 직접 만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답했다.

사람들은 신앙 지도자들이 일주일 내내 동시적으로 혹은 비동시적으로 접근하고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디지털 교회가 대면예배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인간이 관계를 맺는 경험은 귀중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신앙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와 대면 모임의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이번 위기는 디지털 형태의 연결과 참여가 교회의 미래에 필요하고 귀중한 부가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모든 공동체에 바이러스 있다

BBC,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지구촌 나라별 상황 및 예측 보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새로운 바이러스를 국제적인 비상사태로 선언한 지 6개월이 지났다. 1월말에는 1만 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사례가 보고됐고,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모두 중국에서 발생했다. 그 이후 세상과 사람들의 일상은 크게 변화했다. 과연 인류는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 잘 싸우고 있는 걸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900만 건 이상의 코로나19 확진 사례와 7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될 때 10만 건의 감염을 기록하는 데는 몇 주가 걸렸지만 이제는 불과 몇 시간이 걸린다. 세계보건기구의 마가렛 해리스 박사는 "우리는 여전히 가속화되고 강렬하며 심각한 전염병의 한가운데에 있다"면서 "세계의 모든 공동체에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코로나19는 하나의 전염병이지만 이에 대한 영향은 전 세계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기에 자국 밖의 현실은 잘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아마존 열대 우림, 싱가포르의 고층빌딩 또는 영국의 여름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코로나19가 인간의 밀접한 접촉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더 많이 모임수록 더 쉽게 퍼진다. 이는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현실이다. 인간의 밀접한 접촉을 막는 현상은 당신이 세계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지금의 상황을 설명한다. 이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지를 보여준다 (Coronavirus: Is the world winning the pandemic fight?).

코로나19는 현재 대유행의 진 수가 급증하고 있다. 원인지 남미와 인도에서 감염자 (3면으로 계속)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2면 푸른초장 장석상 목사	4면 개혁의 땀방울- 조진모 목사

월드 미션 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성경암, 성경대디,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bbook.org | cjb@1919.org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공고

할렐루야! 회원 여러분!

팬데믹으로 교회와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그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 48회기 목사회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성회와 사랑의 쌀 나눔 및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고, 연세가 많으신 원로목사님들께 식사도 배달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임기 중 마지막으로 11년 만에 회칙을 개정하여 불합리하고 독선적인 독소조항 및 정부회장 후보자들의 짐을 덜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꼭 참석하셔서 향후 100년, 미래지향적인 목사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시 : 2020년 9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Alley Pond Park(Springfield Blvd. 방향 76Ave.)

안건 : 회칙개정
점심식사 : 목사회에서 제공합니다.

회장: 이준성 목사 총무: 마바울 목사
서기: 이기응 목사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 발행인 칼럼 ●

시인(詩人)과 시인(是認)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시인(詩人)들은 경이롭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몇 줄의 글로서 그토록 심오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시를 통해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러나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물의 본질이 무엇이며 여백에 숨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들의 하늘과 땅, 강과 산은 나와 왜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지 자못 궁금하다. 박인환 시인은 여기저기 볼 수 있는 여름날의 호숫가와 가을의 공원에서 애잔한 통찰력을 깎집어내어 심금을 울린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농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들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27세의 나이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한 윤동주의 시는 또 어떤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스물세 살 청년의 시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그렇다. 시인들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것을 건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다. 그들은 건조한 이 땅에 풍성한 자양분을 제공해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풍성케 할 시인(詩人)도 필요하지만 시인(是認)도 필요하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是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늘을 기쁘게 한다. 시인(詩人)이 쉽지 않듯이 시인(是認)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였다. 그런 시인에는 자기들의 주장하던 자신의 우선순위, 물질, 시간, 감정, 취미, 습관, 심지어는 직업과 가족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였다. 그러한 시인 속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절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29세의 나이로 예수님을 시인하다 순교한 집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이면 된다.” 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 잃었으나 이 땅의 어떤 아름다운 시(詩)보다 더 아름다운 시인(是認)을 남겼다.

운동주, 집 엘리엇, 그들은 서른도 안 되어 이미 충분한 시(詩)를 남겼고 뜨거운 시인(是認)을 남겼다. 11살짜리도 이렇게 했다는 글을 읽었다. 루마니아의 푸로레스코 목사가 공산당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가 심한 고문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자 공산당들은 그를 회유시키기 위하여 그의 11살짜리 아들도 잡아다가 그 앞에서 심한 고문을 가하였다. 푸로레스코 목사는 자기가 고문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아들이 고문을 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고문을 당하던 11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외쳤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십대, 이십대의 사람들, 아, 나는 벌써 이순(耳順)을 훌쩍 넘겼건만 도대체 무슨 시(詩)를 지었고 어떤 시인(是認)을 하였는가. 세상은 무말라 구한다. 아름다운 시(詩)를, 하늘은 애타게 찾는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是認)하는 자를, 나도 시인이 되고 싶고 시인도 하고 싶다.

“트럼프처럼만 하지 않으면” 되는 쉬운 싸움?

The Economist, '2020 대선 승자로 부상하는 조 바이든 후보 선전 이유/정치 인생 분석 보도 (2)

바이든은 1942년생으로 카운티 의회 의원을 잠시 한 뒤 나이 서른이 채 되지 않았던 1972년에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최연소 당선 기록을 세웠다(취임식이 당선 몇 개월 뒤여서 30세가 넘어야 상원의원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지킬 수 있었다).

이후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법사위원장, 외교위원장 등을 맡았고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을 지냈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만하면서 한편으로는 수다스러운, 친근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완숙한 경지의 경험 많은 중도파 백인 원로정치인인 이미지로 쌓아왔다.

그러나 뚜렷한 자기 색깔이 없어서, 중도적 입장에서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것보다는 이끌려왔다는 평을 받아온 그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까?

트럼프 진영은 그를 중대 없는 어릿광대라고 조롱하

를 주장했다. 그들은 바이든이 당선되려면 이런 좌파적 요구를 수용해야 투표장으로 열정적인 유권자들을 불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를 장악하는 승리를 안겨

트가 됐을 때 암으로 죽었다. 그 슬픔 때문에 그는 웬만하면 대선후보로 지목되는 부통령 프리미엄을 포기했다. 그가 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돌아온 계기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2017년 버지니아 살라츠빌에서 벌인 행진을 트럼프 정부가 옹호한 것이었다. 2018년 중간선거에

의 등장이 상징하는 민주당 자체의 좌표 왼쪽 이동과 함께 그도 자연히 반대쪽으로 움직였다. 그리하여 처음엔 “트럼프 타도”가 단일 목표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것만으로는 북극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버린 상황 변화를 맞이했다. 말하자면 급작스레 바뀐 세상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바이든의 정책공약 리스트 속에는 최저임금 인상, 노조보호, 파산 및 선거자금 관련법 개정 등 진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나, 이코노미스트는 그 중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예시했다.

우선 의료보험 개혁이 손꼽힌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미적지근했던 의료보험 개혁조차 폐기하려 애썼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바이든의 의료보험 개혁안은 10년 전만 해도 과격하게 들렸을 공적의료보험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개혁안을 넘어서서, 개별적 사보함을 없애고



준 것은 진보세력이 아니라 원래 공화당이 지배하던 중도세력의 이탈이었다. 이들은 지금 바이든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폐단을 겪은 지금, 미국의 다수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은 '미국 정신'과 '예의'의 회복을 부

서 바이든은 지원유세를 벌였고 지난해 3월에야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으로선 이번이 세 번째 대선 출마선언이다. 첫 번째는 1987년 대선 때인데 표절시비로 하차했고, 그 20년 뒤의 두 번째 도전에서는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예

바이든 과거성향: 낙태허용, 학교내 인종차별 폐지, 범죄엄단정책에 미온적 공적의료보험 도입, 기후변화 대응책 강화, 글로벌리더 미국 역할 되찾으려

는 한편, 그가 대권을 잡으면 위험한 민주당 내 좌파그룹의 인질이 돼, 그들이 주장해 온 경찰부서 해체(시민자율치안체제로의 이행), 총기 소유 금지 등에 덜컥 동의할 것이라며 보수층 표심을 자극한다. 민주당 내 진보그룹은 타성적인 중도주의에 빠져 당내 세력에 이끌려온 그가 미국의 병폐들을 과연 치유할 수 있겠느냐고 의심한다.

민주당 내 진보세력은 대선 예비선거 때 공적 의료보험 도입과 경찰부서 폐지 등

르짖는 온건하고 예의바르고 선량한 이미지의 바이든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의 그런 선량하고 친근감 있는 온건 중도 이미지와 함께 개인적 불행이 겹쳐진 가족사를 통해 바이든이 깊은 공감 능력을 갖춘 걸 장점으로 꼽는다. 그가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이 된 직후 첫 번째 아내와 한 살짜리 딸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그 사고에서 살아 남았던 아들(Beau)은 2015년 그가 오바마의 러닝메이

비후보들 중 5위로 순위가 떨어지자 사퇴했다. 이번 세 번째 도전에서도 예비후보 경선 초기에 계속 실패하는 성적표를 얻었으나, 민주당 공식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낙선할 게 뻔한 버니 샌더스를 밀어낸 후보가 그뿐이라는 당내 합의에 따라 민주당의 초계파적 대선후보가 됐다.

그는 원래 낙태 허용문제나 학교 내의 인종차별 폐지, 범죄 엄단정책에 미온적이었고 금융규제완화를 지지해왔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공적 의료보험을 완성하는 것이다. 노인요리지원 혜택 대상자의 적용연령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겠다고 한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탈퇴해버린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미국이 다시 들어가고, 온난화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0)로 만들며,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등 오바마 정부 구상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 <6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 액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배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광고문의: 347-223-1531 718-886-4400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식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직선 특수경유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역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저어익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2020년 가을학기 입학안내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6. 입학 전형료 (\$30)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접수마감: 2020년 9월 4일(금) 오후6시
2. 원서교부처: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3. 입학시험: 2020년 9월 5일(토) 오전11시
4. 개강부흥회: 2020년 9월 8일(화)~9월 10일(목)
5. 문의처: Admission Office / 학감, 교무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rptseast.org 718-463-7163
학감 허윤준 목사 718-637-1470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디지털 연결/참여로 ...

(1면에서 계속)
신앙의 지도자들이 지금 당면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열릴 때 온라인 시청자들을 더 깊은 관계로 이끌 수 있는가이다. 지도자들이 이 시기에 계획적으로 준비한다면 성도들을 종교적 소비자

에서 참여하는 제자로 변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회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도구들을 이용해 참여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모임의 단계로 조심스럽게 나아가갈 때 디지털 교회가 계속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예배의 디지털 버전을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디지털 제작자의 시대로 이동할 수 있다면 신앙의 지도자들은 성공적으로 회중을 성장시키고 지속적인 영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모든 공동체에...

(1면에서 계속)
이러한 대응은 홍콩이 사람들을 격리시설에 보내도록 하거나 한국에서 은행계좌와 전화번호를 추적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 유럽과 호주가 봉쇄해제와 질병역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우리가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표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몽골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사례는 7월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몽골에서는 단 29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는 없다.
런던 위생및질병대의학 대학의 데이비드 헤이만 교수는 "몽골이 매우 제한된 자원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몽골은 전염병학 사례를 분리하고 접촉자를 식별하는 한편 감염자의 접촉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몽골은 학교를 빠르게 폐쇄하고 국제여행을 제한했으며 초기에 마스크와 손 씻기를 홍보했다.

에서 운동해야 한다.
유럽도 개방되고 있지만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에서는 모두 몇 주 만에 다시 가장 많은 감염 사례가 나왔다. 독일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루에 1000건 이상의 감염사례가 보고됐다.

런던대학교 세인트 조지의 엘리자베타 그로펠리 박사는 "이 바이러스는 지구 전체에 퍼져있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람에 의해 감염되기에 우리 모두가 연결되었음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반면 헤이만 교수는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 리더십 부족으로 인해 공중보건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러스는 급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는 팬데믹 기간 동안 분명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한때 이상한 것으로 여겼던 유럽 내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일상이 됐고 몇몇 해변 리조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과거의 성공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로펠리 박사는 또 "이는 단순히 여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인간이 하는 활동에 대한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심지어 함께 노를 부르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도 바이러스는 퍼진다.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봉쇄 방지 집회에 참여해 바이러스가 "약간의 독감"이라고 말했다 3월엔 전염병이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라질에선 28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0만 명이 사망했다.

홍콩은 코로나19의 1차 유행에 잘 대응한 것으로 널리 칭찬받았지만 현재는 체육관과 주점이 다시 문을 닫았다. 디즈니랜드는 한 달도 채 안 되는 동안 문을 열었다.

그로펠리 박사는 또 "이는 단순히 여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인간이 하는 활동에 대한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심지어 함께 노를 부르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도 바이러스는 퍼진다.

하지만 사회를 무너뜨리는 고통스러운 봉쇄조치를 시행한 최다 감염국들은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경계를 풀다 보면 바이러스는 다시 퍼질 것이다. 일상은 여전히 불잡기 힘든 먼 곳에 있다.

해리스 박사는 "폐쇄를 그만두는 것은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표준을 뜻한다"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를 전혀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성공을 보인 영역은 바이러스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퍼지는 능력을 막는 부분이다. 뉴질랜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로펠리 박사는 "이 국가들이 봉쇄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국가들은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있어 아프리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대륙이다. 아프리카에는 지금까지 백만 건이 넘는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뉴질랜드는 자국 내에 감염사례가 몇 건 밖에 없었을 때부터 일찍이 봉쇄조치를 취했다. 지금 뉴질랜드는 거의 감염사례가 없다. 그들의 삶은 대체로 정상으로 돌아왔다.

호주는 봉쇄에서 벗어날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 중 하나지만 빅토리아주는 현재 심각한 수준이다. 펠버튼은 7월 초에 다시 폐쇄됐지만 감염이 멈추지 않자 더 엄격한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제 야간통행시간이 생겼고 사람들은 집에서 5km 이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감염자의 대다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왔지만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감염검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렵다.

기본에 충실한 것은 가난한 나라에서도 도움이 됐다. 몽골은 전염병이 시작된 중국과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세계 다른 대륙에 비해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19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는 수수께끼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훨씬 더 젊다. 아프리카 평균연령은 19세인데 비해 코로나19는 노년층에 더 치명적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 Fax: (718) 886-0074 (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6면으로 계속)

원로칼럼

목사와 여성도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회란의 위대한 대 칼빈주의자이고 대 설교자, 목회자이자, 대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이다.

카이퍼는 25세에 명문 라이덴 대학교에서 문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박사(Dr. Theol)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26세에 목사로 안수 받고 시골 베이스트(Beest)교회로 목회하러 갔다. 베이스트교회는 비록 시골교회이지만 설립한지 300년이 넘는 개혁교회였다. 특히 베이스트개혁교회는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과 신앙을 제대로 계승한 정통교회였다. 특히 1619년에 돌트총회에서 결정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철저히 믿는 개혁교회였다. 그런데 젊은 목사 카이퍼는 비록 신학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출신의 목사지만 목회는 처음이었다.

카이퍼는 당시 라이덴 대학교의 신학의 분위기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자였다. 특히 카이퍼의 스승은 당대의 자유주의 대 신학자인 스콜턴(Scouten) 박사였다. 비록 카이퍼의 아버지 안 카이퍼 목사는 훌륭한 정통신학과 신앙을 가진 목회자였고, 카이퍼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당시의 라이덴 대학의 자유주의신학의 물음 많이 먹었다. 당시 유럽의 교회는 모두 국가교회로서 인본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사상이 지배하였다.

카이퍼 목사는 당대의 최고의 칼빈 신학자이자, 젊은 목사로서 첫 설교는 당당하고 웅변적이었다. 하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카이퍼 목사의 설교에 냉담했다. 카이퍼의 첫 목회는 큰 시련이 다가왔다. 특히 당시에 젊은 여전도회 회원 가운데 발투스(Battus)란 분이 있었다. 발투스는 철저한 전통적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역사적 개혁신학을 지키는데 톡톡 물쳐있었다.

카이퍼는 예배 후에 성도들과 악수례를 했다. 그러나 발투스만은 목사의 손을 거절했다. 목사로서 카이퍼는 참으로 민망하고 속이 상했다. 카이퍼는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기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카이퍼는 드디어 발투스의 태에 심방을 갔다. 하지만 발투스는 카이퍼 목사에게 싸늘하고 냉담했다. 하지만 카이퍼 목사는 인내를 갖고 계속해서 대화의 물고름 트자, 발투스는 카이퍼 목사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카이퍼 목사님! 우리들은 카이퍼 목사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의 신앙사상은 칼빈의 역사적 개혁주의의 정신과 맞지 않은 현대자유주의자의 사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철저한 칼빈주의의 사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평신도가 박사 목사에게 당돌하게도 목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발투스의 지적대로 카이퍼 목사의 설교가 현대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도전적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가 평신도의 충고를 듣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카이퍼 목사는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발투스의 충고를 받아들였고, 카이퍼 목사는 발투스의 진심어린 충고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설교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물론 카이퍼는 박사학위논문으로 '칼빈과 라스코의 교회론 비교 연구'란 제목으로 썼다. 그래서 카이퍼는 당대에 칼빈 연구의 대가였다. 이미 그는 학생시절에 '칼빈과 라스코'라 논문으로 당대 최고의 금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까지 카이퍼는 칼빈 연구의 대가였지만 칼빈주의의지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카이퍼는 합리적이고 인본주의적 자유주의 사상에서 돌아서서 정통 칼빈과 칼빈주의의 사상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지금도 세계 많은 학자들 가운데 칼빈 연구의 대가들이 많지만 그들이 모두 칼빈주의자는 아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칼빈의 개인과 그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다.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 때마다 칼빈을 말하거나 개혁주의를 외치는 중에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러 있다. 결국 카이퍼 목사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여성도의 충고를 듣고 정통 칼빈주의의 사상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카이퍼는 19세기 칼빈주의 부흥운동의 위대한 인물 이 되었다.

카이퍼는 '평신도가 말하는 충고'로, 목사는 복음 곧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라는 역사적 개혁주의의 사상으로 돌아섰다. 그의 칼빈주의의 사상은 칼빈의 신학사상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였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 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칼빈주의의 운동을 전개했다.

당대의 명문 라이덴 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 소지자인 카이퍼 목사에게 당당히 진심으로 충고했던 발투스를 생각해보라. 카이퍼는 그의 일생 동안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충고를 해주었던 발투스를 끝까지 잊지 않았다. 여성도의 충고를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카이퍼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높이시고 크게 쓰신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복음에서 멀어진 설교, 자율주의적 설교, 심리적 설교, 비성경적 설교, 인본주의적 설교, 자유주의적 설교에도 아무 탈 없이 잘 넘어가는 것이 참으로 걱정이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언제나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여, 자신의 사상과 경험에 동참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을 곧 부흥이고 성공이라고 우기고 포장한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젊은 여성도 발투스의 충고를 듣고 철저한 개혁주의자로 방향을 바꾼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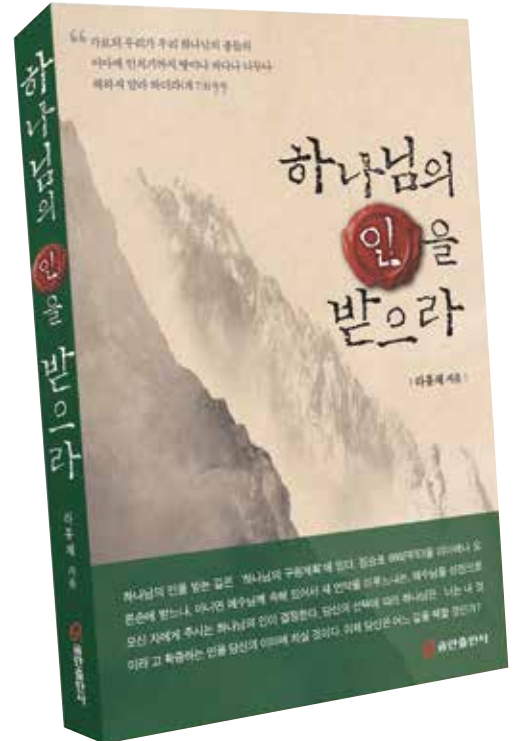
skc0727@yahoo.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동양의 스트라디바리우스 진창현 명인 스토리

일제 강점기에 경상도 김천이라는 시골에 살던 14살의 어린 소년이 강제 징용과 탄압을 피하여 어머니 품을 떠나 일본으로 갔다. 16살에 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코하마 항구에서 석탄을 나르는 노동으로 중학교를 마쳤고, 미군 불도저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영어실력으로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들을 상대로 낮엔 인력거꾼으로 밤에는 메이저 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영어교사 자격증을 받고도 조선인이라는 신분차별로 교사가 될 수 없었음에 절망으로 지내던 날 동네 골목을 지나는데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되었다. 분명한 피아노 소리가 창현의 귀에는 분명한 바이올린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였다. 고국을 떠나오기 전 중학교 2학년 때 일본인 교사로부터 처음 바이올린을 접하고 약간의 연주법을 가르침 받은 기억이 되살아났다. 때를 맞춰 대학 강당

에서 '바이올린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듣게 되면서 자신의 미래를 바이올린 제작에 뜻을 품었다. 그 강의에서 특히 창현의 마음에 사로잡은 대목은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신비의 소리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20세기 문명을 다 동원해도 그가 만든 소리를 만들어 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강의를 들으면서 창현은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도전하면서 용감하게 바이올린 제작에 도전장을 내걸었다.

17세기 예술의 고장인 이태리 북부 크레모나 지역은 바이올린 명산지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아마티 그리고 과르네리라는 3대 명장들이 산출되었다. 창현은 돈이 생길 때마다 악기들을 계속 사서 눈을 감고 소리음을 듣고 좋은 악기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훈련에 전념했다. 그리고 난 후에 악기를 제작하는 일을 시작해야 했지만 조선 사람에게는 제작기법을 가르쳐주는 장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분야엔 국적 차별이 없을 줄 알고 도전을 했는데 산 너머 더 큰 산을 만났다. 수없이 많은 장인들을 찾아 전역을 두루 다녔지만 조선인을 제자로 받아주는 장인은 아무도

없었다. 갈 곳이 없어 역전에서 며칠을 배회하던 그를 불쌍히 여겨 경찰이 임시 체류할 수 있는 움막을 내어주었는데 그곳이 바로 스키 바이올린 공장 부근이었다고 한다. 그 지역은 바이올린 제작으로 가장 적합한 좋은 단풍나무들의 집산지였는데 기회가 있는 대로 근접한 재목들을 모아서 공장장인들에게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창현은 어깨너머의 학습기회로 삼았다. 여름철에는 노동으로 겨울철에는 바이올린 제작에 몰두한지 20여 년이 지난 날... 자신의 작품들을 국제콩쿠르에 출품하였다.

1976년 미국 건국 200주년 기념 제2회 국제 콩쿠르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세공과 음향부분 등 총 6개 분야의 작품들을 출품하였다. 펜실베이니아대학 강당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 무명 장인은 한쪽 의자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도착하여 시차로 인한 피곤함과 참가에 의의를 수상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았기에 그는 수상식 내내 깊은 졸음에 빠져 있었다. 사회자가 바이올린 수상자 이름을 호명하는 소리도 멀리 꿈결에 들렸다. 우레 같은 박소리로 들었지만 수

상자가 단상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똑같은 이름을 또 불렀고 여전히 수상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사회자는 두 번째 비올라 수상자를 호명하는데 아까 불렀던 이상한 이름과 같은 이름을 또 부르는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졸음에 빠져 있었는데... 여전히 수상자는 나타나 않았고 박수 소리만 여전히 있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상자를 호명하는데 계속 처음부터 발음이 비슷한 이름을 불러서 어느 중국인 장인을 부르는 줄로 알고 여전히 창현은 졸고만 있었다. 사회자는 거듭 'the Winner is Mr. 쟁훤 진!'을 불렀는데 그때서야 자기 이름을 영문으로 부르는 미국식 발음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서야 뒤뚱수를 한 방 맞은 느낌으로 머리동절한 채로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서다. 서치라이트가 비치고 장내는 떠나갈 듯한 박수소리에 천성이 날아가는 줄로 알았다고 한다.

총 6개 부문에서 무려 5개의 상을 휩쓸었다. 하나 받고 내려가려면 다시 돌려 세워서 또 상을 주고... 주고 무슨 상을 그렇게도 많이 받는 것인지 머리동절한 상태에서 5개의 금상을 받았다. 동양의 스트라디바리

우스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이름은 진창현(1929-2012)이었다. 창현은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작품에 거의 흡사한 기교를 터득한 명인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1984년에는 미국 바이올린 제작자협회로부터 더 이상 이들의 작품은 검사가 필요 없다는 '무검증 제작자'로 부르는 세계적으로 단 5명밖에 없다는 마스터 메이커(Master Maker) 칭호를 받았다. 창현의 수상소식이 보도되자 일본은 귀화를 수차례 권고했지만 84세로 죽는 순간까지 조선인으로 살았다.

명장 창현은 2012년에 떠났지만 그의 작품은 여전히 아이작스틴, 로스트로포비치, 엔릭 셀리, 정경화, 강동성 등 명연주자들의 손에서 신비의 선율을 노래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고,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드라마들이 제작되었는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에 장인의 일생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포기가 없는 불가능의 도전자 진창현! 8.15 해방 기념일이 가까이 오는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삶으로 보여준 진정한 조선인 진창현의 삶에 고개를 숙인다. jkim47@gmail.com

푸/른/초/장

장덕상 목사

(필라델피아 한인개척장로교회)



1. 사마천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중국 전한시대의 역사가 사마천(司馬遷, BC145-86)은 사기(史記) 열전(列傳) 중의 백이(伯夷)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어질고 깨끗해도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고, 도적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몸을 육포로 만들어 먹었지만 천수를 누렸다. 나는 매우 당혹스럽다. 이것이 하늘의 도라면, 그것은 과연 옳은가 그른가?"

중국인들에게 하늘의 도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신적 섭리를 뜻하는 것이기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선하신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신학적 물음과 같습니다. 비록 사마천은 시편을 읽어본 적이 없고, 시편의 기자도 사마천의 물음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동일한 질문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대답이 시편 73편에 등장합니다.

2. 시인이 넘어질 뻔했던 문제

시인은 먼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스라엘 중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1절). 그는 답을 압니다. 그러나 고민 없이 정해진 답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전제입니다. 그런데 시인에게는 문제가 분명히 보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으로"(2-3절). 문제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4절). 심지어 사람들이 모두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그들을 피해가는 듯합니다(5절). 지금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목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했으며, 수천억원의 부정에 대한 추정금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

계 지식이 있으라 하는도다"(11절). 그리고 시인은 악인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결말짓는다. "불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12절). 그래서 그는 씩씩하게 호소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13절). 왜냐하면 악인은 변장하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14절).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의롭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은 헛일이라는 말입니다. 정의는 보상되지 않고, 악인들은 한탄 단단히 쟁기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3.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방식

그러나 시인은 곧 자신이 휘청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세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그는 악인을 질투했습니다(3절).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는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는 사실일 뿐입니다. 방종하는 자유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의 경외하라"(잠23:17)고 가르쳐줍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쓴 마음을 품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21절을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찢린 듯이 아파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bitterness)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짐승과도 같이 우매하고 무지한 일임을 깨닫습니다(22절).

셋째, 그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고'(16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절망감으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던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양심 없이 사는 이들은 뻔뻔하게 오래 사는데, 오히려 양심적인 사람들이 작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문제는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갈 때에 혼란스럽고 절망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17절) 오직 겸손히

나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이야기의 '결국'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과 역사의 '결국'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부조리들이 지금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잘못은 바로잡힐 것이고, 악에 대한 대가는 치러질 것이며, 선은 최후 심판 때 보상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교정되고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파악한 것은 '그들의 종말'(their end)이다. 지금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습니다(18절). 그들이 가는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마7:13)입니다. 결국 죽음이 그들을 찾아 전멸시킬 것입니다(19절).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는 것같이, 그들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말 것임

생명이다. 죽음은 이 사귀를 방해하거나 파괴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된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의 엇갈리는 운명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옴너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27-28절).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한 복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 쪽에 앉으셨습니다"(히12:2 새번역). 예수님은 이 믿음의 길을 여셔서 그 고난의 길로 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의 주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머나먼 종말에 대한 막연하고 불안한 기대를 우리의 현실 속으로 가져와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선취된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왜곡된 현실 앞에서 날마다 유혹을 느끼고 당혹감을 느끼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천년 전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양심의 소리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씨름해온 고민입니다. 답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데 있습니다. 그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그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부활 승리하기를 가장 멋지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25절).

하늘과 땅, 시간과 영원을 통틀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분기'(기업)이십니다(26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이요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이 되시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사귀이 영원한

krpcpastor@hotmail.com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1-28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지식이 열립니다. 그들의 종말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의 문제를 고민할 때,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봐서도 안 되고, 스스로를 자기연민에 빠져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다가 절망에 빠져도 안 됩니다. 해답은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4. 근본적인 해결책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자기 속으로만 파고들면 문제의 종이 되고 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로부터 떨어져서 더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 안의 문제 속에서 미로처럼 헤매면서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야기 전체에 귀를 기울여야 함

니다(20절).

악인의 운명이 이러하다면, 의인은 운명은 아주 다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23절). 경건치 않은 자들이 지금은 득세하지만 마지막에는 패망할 것이고, 경건한 자들은 지금은 물론 영원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 땅에서 결핍과 핍박으로 고난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립니다. 시인은 그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멋지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25절). 하늘과 땅, 시간과 영원을 통틀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분기'(기업)이십니다(26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이요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이 되시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사귀이 영원한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여성 오바마” 민주당 부통령 후보자 Kamala Harris의 정치 전력 추적하는 Political Watchdog 단체 조사자료

이번 다가오는 2020년 11월 대선에서 “세상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투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세상이 어둠속에서 신음하고 “죽음의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훔쳐가고 있는 이때, 성경적 가정을, 결혼관, 생명의 존엄성, 신앙의 자유, 다음세대 학교교육(School Choice), 점점 포르노보다 더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입법부와 정책들을 통해서 좌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뽑는 투표는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의 매우 중요한 책임입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대선은 더 중요하겠지요.



체로부터 2017년과 2018년에 “Perfect score 100점”을 받았 습니다.

ADA는 1947년에 주요 연례투표를 기반으로 “진보정치” 정책, 입법들에 대한 등급을 집계하는 진보 정책추진을 위해 세워진 단체로서 그들의 임무와 목표는 민주당에 뽑히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진보주의의 표준 척도를 등급하고 진보적인 기준

역사상 지금까지의 정치 전력상 최고 진보주의자 중 한명으로 뽑혔습니다.

참고로, GovTrack은 당파를 초월한 중립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Josh Tauberer에 의해 2004년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의원들과 그들의 의정 기록연말 통계를 산출하여 추적합니다.

GovTrack 웹사이트에 언급

속한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안에만 동의하고 지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 “pragmatic moderate(현실적이고 중립성을 지키는 정치인-필자역)”라고 표현했는데 매우 뉴욕타임스다운 해석이고 언론기관의 대단한 미화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캘리포니아 수도의 유력지이자 북가주에서 특별히 많이 읽고 있는 The Sacramento Bee 언론사의 Tauber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말라 해리스가 내리던 정책들과 입법결정들을 분석한 우리의 조사 결과는 뉴욕타임스가 말하는 “pragmatic moderate”라는 그녀의 이전 경력과 반대된다. 따라서 그녀가 지방 검사와 법무장관으로 있었을 때의 그녀의 행동이나 현 상원의회에서의 정책 제안들까지 어떤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 크게 반영될지는 좀 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거짓말 할 수 없는 국회 입법 및 의정 활동전력들!

주류 미디어가 Kamala Harris 민주당 부통령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포장하여 언급하던지 상관없이, 그녀는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부통령 후보”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은 모든 정치전력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입법 및 의정 활동내용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2020년 대선에 작정을 하고 성경적 보수 가치관을 미국 역사와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와 교육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을 이런 부통령 후보 선정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org 나 Facebook에서 Tvnex.org를 찾아 참고하세요.



멜라 해리스는 무분별한 낙태와 태아장기까지 팔았다는 혐의를 받는 낙태대기업 Planned Parenthood 지지자이자 정치파트너.

을 만들어 가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듯이 이들이 말하는 진보란 동성결혼 찬성, 트랜스젠더(sex change) 찬성, 무분별한 낙태 찬성, 포르노수준의 공립학교 성교육 찬성, 신앙의 자유는 계속 무시하는 정책들인데, 진보주의 단체들에서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평등법-Equal Rights”, “차별금지법(Non-discrimination)”, “포괄적인 교육법(Inclusive education, 성교육 및 정체성 교육)” 등의 듣기 좋은 법적 이름아래 기독교 가치관을 역차별 시키는데 특별히 큰 성공을 거두어왔습니다.

또한, 잘 알려진 GovTrack의 분석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는 2019년에 가장 리버럴(liberal)한 진보주의 상원의원이었으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정책들을 온전히 추구하는 카말라 해리스

된 것에 따르면 “우리의 독특한 이데올로기(보수/진보) 분석은 의원들이 공동으로 지지하는 법안과 결의안의 패턴이 다른 의원들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의해 임팩트 행동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이 점수는 의원들의 성향이 보수적인지 혹은 진보적인지를 측정하는 척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물론 추적하고 있는 현실의 작은 측면만을 고려한 점수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카말라 의원은 초당파적인(non-partisan) 입법 과정에서는 “다른 상원 민주당원들에 비해 가장 적게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ovTrack은 “해리스가 후원하고 지지한 총 471개의 법안 중 겨우 15% 미만이 민주당 소속이 아닌 입법자가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그 뜻은 해리스 상원의원은 줄곧 자기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구약시대에 제비뽑기를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제비뽑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거 교회에서 일군 투표시에 제비뽑기를 하지는 어느 권사의 질문도 나왔는데 지금 시대에도 제비뽑기가 가능한 것인지요?

-하버에서 이희은

A: 질문이 2가지인데 첫째는 제비뽑기에 대한 설명이요 둘째는 그것이 오늘의 교회시대에도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제비뽑기는 글자나 기호를 적어놓고 어느 하나를 골라잡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비뽑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간주린비전성경사전에 의하면 제비뽑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비의 종류로는 “우림과 둠뿔” “나무나 토기 조각패” “동물의 간” “동전”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제비를 뽑았던 예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땅 분배, 출전할 병력 선발(삿20:9), 재년에 대한 원인규명(욘1:7), 포로이후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주민선발(느11:1), 하만의 제비뽑기(에3:7), 로마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눈 일(마27:35, 막15:24) 등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뜻 알기위해 제비뽑기...더 이상 필요 없어

종교적인 일에 사용된 예로는 두 염소 중에서 광야에 보낼 아사셀을 가리는 경우(레 16:8-10), 성전 직무 할당(대상 25:8; 느10:34), 가룟유다를 대신해 맛디아를 사도로 뽑은 일(행1:26) 등이 제비뽑기로 선택되어졌습니다. 또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기는 하였지만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택을 받은 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였습니다(삼상10:17-21).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꿀을 짖어 먹은 일이 드러나게 된 것도 역시 제비뽑기를 통해서였습니다(삼상14:36-42).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의 시대에도 교회는 제비뽑기를 해야 하나? 의 질문입니다. 교회일군을 선출하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기보다 제비뽑기를 하고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경신학자였던 박윤선 박사는 사도행전 주석에서 “제비뽑기는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중 하나였으나 오순절 성령강림이후로 이 풍속은 없어졌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밝히 계시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가룟유다 대신에 맛디아를 선출할 때 한사람을 뽑기 위해 배수공천하여 둘 중 한명을 뽑았던 것처럼 일군 선출도 배수공천하여 투표로 선출하든지 아니면 아예 무기명으로 교인들이 선출하여 하나님의 일군을 피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시대이기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에 교인 각자가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일군을 선택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적인 방법입니다. 더 이상 오늘의 시대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산쑤(SANSU)

중국 은 지형, 기후, 언어, 민족별로 다양한 나라다. 중국 내에는 거의 180개의 민족 집단이 있는데, 중국의 남쪽 윈난성 지역에서 거주하는 12,000 산쑤인들도 이에 포함된다. 그들은 중국의 55 소수 민족 중 하나족에 포함되었다. 비록 산쑤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조상은 유목민이었으며 먼 북방에서 점차 남하해 온 것



로 추정된다. 그들의 산쑤 언어가 티베트 버마어파에 속하기에 일부는 그들이 티베트에 기원한다고 믿고 있다. 중국 윈난성 지방은 미얀마 국경에 근접해 있으며 숲이 우거진 산과 풍부한 강수량, 비옥한 토양 지대이다. 가파른 산 경사면을 따라 층층이 단구를 만들어 농사짓는다. 작은 마을은 보통 30-40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산악지대에서 수세기 동안 고립된 생활로 사회, 경제에 낙후함을 가져왔다.

삶의 모습

가족단위는 산쑤 사이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가족생활의 양상은 종교에 따라 틀려 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통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다처가 성행하기도 한다. "가족의 권위"는 가장(남성지배)과 부계를 따른다. 이는 남자아이가 아버지의 혈통을 잇고 여자는 남편의 혈통에 속하게 되는 것을 뜻하며 또한 남자아이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대를 잇도록 주어진다.

산쑤는 친절히 접대하는 문화가 잘 알려져 있다. 손님이 방문하면 포도주와 차를 대접하며 만약 그가 음료를 거절하면 가족들은 심하게 상처를 받게 된다. 만약 손님이 음료를 마시면 주인은 최선을 다해 손님을 공손하게 접대한다. 산쑤는 매해 몇 개의 큰 명

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년축하다. 두 번째는 7일간 펼쳐지는 시월 추수기간의 명절이다. 새해를 맞이한 날 후에는 진행자가 지난해와 작별을 고하기 위해 까망게 된 쌀로 만든 3개의 공을 뒤쪽으로 던지고 신년을 축하하기 위해 하얀 쌀로 만든 3개의 공을 앞으로 던진다. 그런 후에 특별한 밧줄을 돌리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그네타기를 즐긴다. 그들은 이것이 재앙을 막아주고 한해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 행사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모닥불에 구워먹고 마시고 춤추며 노래한다. 자정이 되면 진행자가 축제가 끝난 것을 알리기 위해 그네의 밧줄을 끊고 새로운 해의 시작을 고한다. 축제기간동안 산쑤는 파란색 또는 검은 색으로 염색된

손으로 짠 멋진 전통의상을 입는다. 남자는 특유의 자켓과 티셔츠를 두르고 여자는 색깔이 없는 블라우스와 특별한 모자를 착용한다.

신앙

전통적으로 산쑤는 무생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하는 애니미즘, 다신교, 조상신 등이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고, "거룩한 언덕"에 있는 나무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다. 오늘날 그들은 여전히 이와 비슷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매우 미신적이며 장애가 있는 아이나 쌍둥이를 낳으면 불운한 것으로 여겨 이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부모는 추방당하며 그들의 집과 소유물들은 불살라진다. 많은 신의 존재를 믿고 있으며 하늘과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들

의 마음을 보호하고 병을 가져오는 악귀들로부터 보호한다고 믿는다. 산쑤에게는 3개의 대표적인 종교지도자가 있는데 "주이마(zuima)"는 부족 중에서 가장 나이든 연장자로 모든 종교행사를 주관하는 남성이다. "베이마(beam)"는 주술을 행하는 남자무당이며, 남자 또는 여자도 될 수 있는 "니마(nima)"는 예언하고 의료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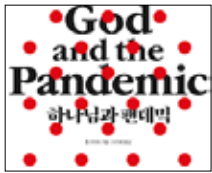
중국정부가 기독교를 엄격하게 금지한 이후로 현재 빼오 사이에서 사역하는 단체는 없다. 성경은 아직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지 못했고 이 지역에 기독교방송도 없다. 중보와 복음 사역이 이 민족에게 급히 요청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하나님과 팬데믹' 저자의 답변

"고통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인간 앞에서 슬피 우는 예수님이 무슨 소용인가요.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책에서 시편을 들어 계속 '탄식하라'고 강조하던데... 현대교회가 탄식 전통을 재발견할 방법이 있을까요."



영국 옥스퍼드대 위클리프홀 선임연구원이자 영국성공회 소속 신학자인 톰 라이트 박사가 자신의 최근작 '하나님과 팬데믹'(비아토르)에 관한 독자의 질문에 답했다. 지난 3일 미국 기독교매체 크리스천티투데이(CT)가 보도한 인터뷰 기사에서, '톨 라이트: 팬데믹은 우리를 겸손하고도 가차 없이 실용적으로 만든다'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라이트 박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주제로 책을 쓴 이유와 팬데믹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 교회의 코로나19 대처법 등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인터뷰는 앤디 베니스터 영국 솔라스공적기독교센터장이 진행했다.

가장 먼저 받은 질문은 '코로나19를 다룬 기독교 서적이 적잖은데, 책을 낸 계기가 있는가'다. 라이트 박사는 "지난 3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코로나19에 관한 글을 실었다. 기독교인이 팬데믹의 해답을 알고 있다고 여기지 말고 겸손히 행하자는 내용이었다"며 "다만 제목이 자극적으로 달린 탓에 트위터에서 여러 소리를 들었다. 그중엔 성경을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인용하는 내용도 꽤 됐다. 책은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말하기 위해 썼다"고 했다.

책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눈물 흘린 장면이 집중 조명된다. 인간을 향한 절대자의 연민을 보여주는 눈물이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울기만 하는 신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라이트 박사는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며 일거에 혼란을 해결하는 이가 아니다. 자기 손바닥까지 꿰어가며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라며 "이런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가 울 때 내 안에서 슬퍼한다는 사실은 큰 위안을 준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해답을 내놓기보다 세상과 탄식하라'는 주문에 관한 의견도 전했다. 라이트 박사는 "탄식이 담긴 시편으로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다"며 "그러면 답답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예배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침실에서 잠 못 자랴 한 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기독교는 일종의 '팀 스포츠'라며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등 성령의 열매는 예배 공동체가 모이지 않고는 연습할 수 없다. 가능한 한 빨리 지혜롭게 모일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나님과 팬데믹'은 코로나19 사태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책이다. 지난 4월 출간됐으며 국내에선 지난 6월 번역본이 나왔다. 국내 주요 서점의 종교분야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에리트레아, 기독교인 박해 심각"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는 아프리카 북동부의 에리트레아 정부가 지난 6월 수도 아스마라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기독교인 30명을 체포하는 등 기독교인 박해가 심각하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4월에도 수도 아스마라 인근 마이 체호트 지역의 한 지하교회에서 15명의 기독교인이 예



배를 드리다 체포됐다.

한국VOM 현속 폴리 대표는 "에리트레아는 북한의 시스템을 따르고 싶어해 '아프리카의 북한'이라 불리고 있다"면서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혹독하게 박해하는 나라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다. 현재까지 45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수감돼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에리트레아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지정됐다. 특별우려국 리스트에 올라간 나라는 북한과 함께 에리트레아, 미얀마, 중국,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9개국이다.

한국VOM에 따르면 에리트레아에서는 4개의 종교만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엄격하게 감시, 규제하고 있다. 개신교에서는 루터교만 허용하고 있다.

지하교회로 내려간 다른 복음주의 교회 교인들은 정기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통해 공개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에리트레아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모든 결혼식에 지하 교인들이 참석하는지 주시하고 있다.

한국VOM은 "뜨거운 사막에 있는 에리트레아의 감옥은 선박용 철제 컨테이너다. 많은 목회자들이 10년 넘게 이 같은 감옥에 갇혀 고문당하고 있다"면서 "VOM은 기독교인 수감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로 발목인 아르헨 자원봉사자의 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국에 발이 묶인 아르헨티나 여성이 3개월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418명을 전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새들백교회(릭 워렌 목사)는 최근 교회 뉴스레터인 '새들백 옛 흙'에 아르헨티나인 에미(Emi·사진)씨 사연을 소개했다.

에미씨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귀국하려 했지만, 상황이 악화돼 돌아갈 길이 막혔다. 남캘리포니아 지역에 머물게 된 그녀는 인근 새들백교회의 식료품 배분 사역에 하루 동안 봉사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 사역은 새들백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마련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차

를 가져오면, 자원봉사자가 차 트렁크에 식료품을 채워주고, 위로와 평안의 인사를 전한다. 희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도 전한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에미씨는 처음엔 뒤에서 이 사역을 도왔다. 교회는 그가 스페인어에 능통하다는 걸 알고 식료품을 전하며 복음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회의 제안을 받은 에미씨는 주저하다 이렇게 기도한 뒤 제안을 수락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올바른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당신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곧 이뤄졌다. 그날 하루 일정이 끝날 무렵 그는 모국어로 한 사람을 전도했다.

이 일 이후 에미씨는 자신이 남캘리포니아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를 발견했다. 그는 3개월간 새들백교회의 식료품 배분 사역 자원봉사자로 나서 틈틈이 스페인어로 전도했다. 그 결과 418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는 "나 혼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다.

"바이든에게 몹시 무례했던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할 데 대해 "놀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테스트포스(TF) 브리핑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든 해리스 상원의원이 과거 TV토론 과정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맹목했던 것을 거론, "해리스가 바이든에 대해 매우 매우 못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놀란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아마도 심지어 포카혼타스보다 조 바이든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라며 "해리스는 조 바이든에 대해 몹시 무례했다. 그리고 무례한 누군가를 발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포카혼타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조롱하며 부르는 별명이다. 워런 상원의원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해리스 상원의원과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트럼프처럼만 하지...

(2면에서 계속)

그러면서도 핵에너지와 세일 오일 개발을 막진 않는다. 대신에 오바마 정부 때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했던 탄소배출권 거래제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탄소세 도입으로 수익자가 오염제거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이런 개혁을 완수하려면 상원(전체 100석) 내 공화당 의석 중 3석 이상을 빼앗아 와야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한계소득세율 39.6% 회복, 트럼프가 삭감한 법인세율 인상(21%→28%)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법안'은 상원 단순 다수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링

(filibustering)의 '인질'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상원에서 60석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클린턴뿐만 아니라 오바마의 후보시절보다 지지율이 훨씬 더 높은 바이든일지라도 민주당 의석을 13석이나 늘리려면 불가능할 것이다.

11월대선 이후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조당파적 협력을 추구해야 할 바이든으로선 그런 압승을 바라지도 않았지만, 대선 승리 후에도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요란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눈에 띄는 정책 변화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대외정책(외교안보)을 빼놓을 수 없다. 바이든은 국제관계에서 트럼프 정부가 포기

한 글로벌 리더와 세계질서 수호자로서의 미국 역할을 되찾으려 할 것이다.

요컨대 오바마 시절의 외교방식으로 돌아가려 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닐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예상한다. 아마도 바이든은 군비통제 협의를 부활시켜 러시아 및 미란 등과의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내팽개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할 것이며, 그와 관련한 국내외 프로젝트들도 활성화할 것이다. 그리고 부패와 독재를 막고 인권신장을 목표로 하는 '민책 변화' 중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대외정책(외교안보)을 빼놓을 수 없다. 바이든은 국제관계에서 트럼프 정부가 포기

세계 모든 공동체에...

(3면에서 계속)

그로펠리 박사는 "인류를 손 쓸 수 없을 몰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어떻게 통제

할지 큰 의문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모든 것은 언제 끝날까? 이미 약물치료법이 존재한다. 저렴한 스테로이드 계열 치료제인 텍사메타손은 중증환자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의 사망을 막거나 봉쇄를 해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향후 몇 달 안에 스웨덴의 전라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스웨덴은 폐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요양

원에서 이웃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전 세계의 희망은 백신에 고정돼 있다.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의 확산 능력을 막을 수 있다.

현재 6개의 백신이 3단계 임상 시험에 돌입했다. 이 단계는 유망해 보이는 백신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다. 보건 당국자들은 "언제"가 아니라 "만약" 백신을 확보할 경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계보건기구의 마가렛 해리

스 박사는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 할리우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2시간짜리 영화에서는 결말이 꽤 빨리 나오지만 과학자들은 자신에게 백신을 주입하면서 '우리 모두 구원받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브래드 피트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1990년대

전세계 기독교인들은 19세기말에 시작된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던 모습에 놀랐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1945년 이전까지 일제의 압박을 이겨내고, 그 후 출현한 공산당의 횡포와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 후 고난 속에서 다져진 신앙을 기초로 전국 복음화 불길이 확산되었다.

많은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교인들이 넘쳐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세계선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각 교회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기도과 물질로 사역에 동참해왔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20세기 이후 전세계 교회를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대감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교회에 큰 변화가 생겨났다. 꾸준하게 성장을 거듭해오던 모습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제자리걸음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침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순탄한 길을 걸어왔던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음을 직감하고 교회의 앞날을 우려하며 교회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뿐 아니라, 반드시 변화와 갱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 한국교회는 급성장에 취한 나머지 당연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의 불길을 계속 지피려하였다. 교회성장에 대한 신화를 버리지 못한 것은 교회지도자들이 '교회성장학'이라 불리는 이론에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성장학

'교회성장학'이란 교회성장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를 하는 학문을 가리키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교회성장을 꿈꾸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 이미 성장을 경험한 사례를 접하면서 배워 실천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가 있다. 이와 반대로, 각자의 은사와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성공사례를 따라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교회는 '양보다 질'이 중요시해야 한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앞세워, 이미 마음으로 포기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한 듯하다. 이런 논리를 따르자면 교회성장학이란 이론은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것이기

에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성장학'이란 이론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실천적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교회성장학' 역시 다른 학문과 같이 장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평가할 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으며 21세기 교회를 향해 도전이 되는 내용도 제시하기 때문이다.

도날드 맥가브란

그의 성장과정과 사역이 선교현장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교회성장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열쇠이다. 그가 선교교회와 성장하지 않는 현실을 접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작은 노력이, 향후 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의해 학문화되었으며 결국 한국교회를 포함한 세계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교회성장학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교회성장학이란 학문적 틀로 발전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955년에 '하

피터 와그너

교회성장학이 기존 교회에 접목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 1930-2016)이다. 그도 남미 볼리비아 선교사 출신으로 스승인 맥가브란에 이어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교회성장학 교수로 1971년부터 30년간 봉직하였다. 한국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던 그는 교회성장운동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효과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무엇보다 와그너의 초자연적 현상과 교회성장을 연결시키는 것에 관심을 쏟았다. 특히 능력전도(power evangelism), 즉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처음 보내실 때 사용하신 방법의 모델을 시험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오순절교회의 은사주의자들이 1950년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것이 능력전도의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이 통한 교회성장이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와그너와 그의 동료들은 끊임없이 세계의 대형교회와 역동적인 교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회성장의 기준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동시에 교회성장을 위한 자원을 실시하였는데, 교회설립세미나, 지역교회의 성장을 위한 계획설정 및 운영, 문제해결을 위한 워크샵, 교회성장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진리와 유행

1960년대의 성장률이 41.2%, 1970년 5.9%, 1980년대 3.75%로 꾸준하게 성장하던 한국교회는 교회성장학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특히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교회성장학이 한국교회에 소개되자마자 큰 인기를 누렸다. 이미 성장을 일로에 있었던 한국교회였기에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더욱 교회가 커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교회성장이란 제목만 붙여놓으면 많이 팔리는 인기서적이 되었다. 교회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있던 목회자들은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여 효과적 방법을 배우려 하였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과대광고가 판을 쳤다. 교회성장에 대한 열망을 지닌 목회자들은 때를 지어 이곳저곳으로 몰려다녔다.

불행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부흥은 곧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 이란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교회마다 성장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성경구절을 앞세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신념이 생겨났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눅9:37),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삼3:2)를 예로 들 수 있다. 대형교회가 하나 둘씩 생겨나고, 교인숫자가 목회의 성공과 실패로 판가름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성장에 대한 갈증이 더욱 심해졌다. <16면으로 계속>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18)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5)-교회 성장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나눔의 가교(The Bridges of God)'를 출판하였는데, 세계 각국에서 성장하는 교회와 침체된 교회를 광범위하게 연구한 결과를 이곳에 담은 것이다.

한국교회는 와그너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인 것은 그가 논란과 비평이 대상이 되고 있는 신사도

초심 사라진 '교회성장학', 목적이 이끄는 학문으로 과정 중요성 무시
우상된 교회성장, 수평이동은 성경진리 역행...유행보다 진리 선택해야

정에서 태어난 그는 선교 분위기에 성장하였다. 청년시절 범불가의 길을 선택하여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려줬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뒤 외조부모와 부모님이 헌신했던 땅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맥가브란은 감리교 인도 선교사 제럴 피켓(Jerrel Waskom Pickett, 1890-1981)이 1933년에 펴낸 '인도 기독교대중운동(Christian Mass Movements in India)'이란 책을 통해 선교현장에 대해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현장연구조사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맥가브란은 1934년에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인도 중부의 145개 교회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34개 교회는 이미 정체되었고 11개 교회는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결과 접하자, 자연히 침체와 성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속하였던 선교부는 물론 교파를 초월하여 조직된 기독교협의회를 통해 효과적인 선교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게 되었다.

이 책을 접하는 사람마다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그는 1961년에 오레곤에서 교회성장연구소를 시작하였다. 또한 1965년에는 향후 교회성장학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던 풀러신학교의 선교대학원이 태동되었다. 1970년에 해외선교전략이 총망라된 '교회성장학'이란 이해(Understanding Church Growth)'가 출판되면서 맥가브란은 교회성장학의 중심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선교현장을 배경으로 시작된 교회성장학이 기존 교회에 접목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 교회성장학이 미국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지닌 채 1972년에 25명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단지 집중과정으로 강의를 처음 시도하였다. 참석한 자들은 교회성장학이 지역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확신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이 운동이 퍼져나갔다. 침체되었던 미국교회를 각성시키고 성장에 헌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미국교회에서 유행하던 교회성장학을 한국교회가 받아들여게 된 것이다.

운동, 즉 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하나 님께서는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자신과 그 뜻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그룹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성장학이 신사도운동에 기초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으며, 그것이 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교수생활을 은퇴한 후부터였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에 알렸던 교회성장이론을 비판적인 자세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가 성경적 진리로부터 벗어난 내용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와그너는 그의 스승으로부터 성장 목적달성을 위한 '효과집중'에 대한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맥가브란이 제시한 교회성장원리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동질집단원리(Homogeneous unit principle)'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동류의 사람들에 의해 복음을 전달 받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내용으로, 성경적 원리를 배제하고 성장의 효과에만 집중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와그너는 인도의 카스트로 제도를 의식해서 맞춤형으로 제안한 맥가브란과 마찬가지로 각 교회가 처한 다른 상황에서 수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갈보리장로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벤델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샬롯장로교회, 시애틀평강장로교회, 안디옥교회, 알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열린문교회, 엘파소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노뉴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주 예수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후원교회찾습니다

리더십 코멘터리 (117)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과 교회의 미래

소통하는 리더, 소통하는 교회

미국 NBC방송은 지난 8월 5일 자체 집계 결과를 인용해 미국에서 지난 일주일간 7천486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이를 초 단위로 환산하면 80초마다 1명이 숨진 것과 같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를 사망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변화시켰다.

코로나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가 전혀 없는 위기를 겪고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을 받고 있다. 현대문명과 과학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서 오만한 인간의 문명을 질타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영적리더들이 들어야 할 때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

하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비난 받을 일이 있으면 겸허히 수용하고 고지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동안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개교회주의와 교회성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컸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를 자기 검열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사태를 통해 느낀 건 교회가 사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개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영적전쟁을 역전시키는 리더십

이미 오래 전부터 청년과 다음세대가

교회가 많아져야 한다. 불신자들에게도 매력의 본질이 숨 쉬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연령층 구조가 점점 역삼각형으로 바뀌며 유럽교회가 간 길을 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지금 비상 상황이다. 이 치열한 영적전쟁을 역전시키는 리더십이 간절할 때이다.

교회의 본질을 향한 엑소더스

그동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수평 이동하여 정착한 신자들의 기호와 관심을 반영하는 '고객맞춤형 마케팅'을 잘 구현해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과 조명, 그리고 고급 음향 시설, 안락한 의자와 같은 것들을 조합하여 종교시설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돈으로 치장하여 종교시설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였다.

코로나로 교회에 경제적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교회는 쇼필물이나 시장이 아니다. 그러나 자본 위에 세워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웰빙 마켓처럼 행복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다. 코로나 재난이 이런 가짜 웰빙 신앙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있다.

교회란 무엇이며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현존할 때 교회가 된다." 본회퍼 목사의 신앙고백을 다시 경청할 때이다. 교회는 각계각층의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수)

상처

며칠 전 냉장고를 정리하는데 야채 칸에 숨겨져 있던 양배추가 나와서 다듬다가 칼에 손가락을 베었다. 조금 깊이 베어서 피가 쉽게 멈추지 않았다. 꼭 누른 채로 한참 지압을 한 후 약을 바르고 밴디지를 붙여 놓았다. 그렇지만 부엌일을 계속 하다 보니 밴 자리에 물이 들어가서 아물 것 같다가 다시 틈이 벌어지고 하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상처가 덧나는 것처럼 보여서 신경이 쓰였다. 한 이틀 동안 딱 달라붙는 밴디지를 계속 붙인 후에야 벌어진 상처가 매꾸어지고 붓기가 가라앉았다. 배인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받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별 생각 없이 한 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사소한 행동이 의외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상처의 깊이는 마음이 언짢은 정도부터 트라우마라고 표현하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까지 다양하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 중에는 아마도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가장 깊을 것 같다. 가족은 가장 사랑하고 믿는 관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긴 아픔이나 부부관계를 산산조각 내게 하는 헤어짐은 사람의 일생에 큰 상처를 남긴다. 또한 믿었던 친구나 주변의 사람에게 받는 상처도 마음에 오래 가는 흉터를 남긴다. 상처 받은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상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남기는 정신적, 영적 흉터에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마음 속 깊이까지 찢린 상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다 아물었다고 생각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찢린 자리가 아물지 않아서 덧나고 부었는데도 스스로 괜찮다고 믿는 경우이다. 물론 모든 생명체에는 자연적인 치유의 힘이 있다. 그러나 상처를 인식하지 않은 채 덮어놓으면 치유될 수가 없다. 상처가 이미 아물었다고 믿고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곁에 있지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 주위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를 보지만 본인만은 그 상처를 부인한다.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때로 예민한 반응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운 고립된 삶을 산다. 해결하지 않은 상처를 안고 고슴도치가 되어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찌르면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처를 직시하고 알맞은 조치를 취해서 회복의 길을 가는 것이다. 삶에서 받은 크고 작은 상처를 돌아보며 혹시 그 과정에 나의 잘못은 없었는지 생각해보고 나의 몫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태도이다. 한동안 윤행이었던 내적 치유사역이 지닌 문제점이 있다면 삶에서 겪은 대부분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그 상처에서 치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경시한 채 나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아픔의 결과까지도 타인이 가해자요,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면 평생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다. 설령 내가 받은 상처가 온전히 타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복의 길을 가려면 상처를 준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기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용서는 쉽지 않아서 한 번씩 우리의 기억 속에 아픔으로 찾아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용서의 반복으로 인해 상처로 인한 흉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없어져 가게 된다. 상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평생 흉터를 안고 살지 않으려면 밴 손가락에 약을 바르고 밴디지를 붙이듯이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내어 놓고 하나님의 싸매심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심령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눈물에 젖어 있는 그의 자녀들을 오직 그분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분이기 때문이다.

lpyun@apu.edu

출석교인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각 지체들 세워나가야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타자 위한 존재'에 참여하는 교회로

고, 정부로부터 교회 행사·모임을 제재 받는 등 교회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교회로서는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이더라도 방역지침을 잘 지켜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한다. 이 시대에 대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교회는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예배를 드리지 말고 모이지 말라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다. 방역에는 적극 협력하되 교회가 정부의 통제나 권력에 너무 휘둘러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교회차원에서 방역에 적극 동참해왔음에도 코로나 이후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사회가 교회를 불신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교회가 사회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정직하고 공공성을 보여야 한다.

앞으로도 교회는 사회로부터 계속 비판받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멸시할 지라도 교회는 이를 수용

줄고 있다. 교회학교가 사라진 교회도 증가하고 있다. 다른 재정을 줄여서라도 청년과 다음세대에 집중투자 해야 한다. 지금은 우선순위를 중요순위에 따라 재정을 다이어트하고 청년과 다음세대 살리기에 올인 할 때다.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상황은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영상예배로 이동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 교회의 공동체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성도화 될 것이다. 지금 교회는 성(性), 재정, 세습 등의 문제로 상처 입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교회 이미지가 추락하며 전도유입이 줄면서 실제 출석이 서서히 줄고 있다.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각 지체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교회가 성장해서 출석이 증가한 경우를 보면 불신자 전도가 아니고 수평 이동한 경우가 많다. 실제 기독교인수는 정체나 쇠퇴가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설교내용이나 여러 매력에 따른 교회 간 수평이동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출석교인은 작지만 알차고 건강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떤 것이며, 또 '타자를 위한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타자를 위한 존재'에 참여하는 교회는 '세상적 과제'에 결코 무관심할 수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세상적 과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보여준 책임적 행위를 세상에 다시 보여주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 고난을 감당한 것처럼 교회 역시 이웃을 위해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언제나 '타자를 위한 교회'여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탐욕적인 교회는 사회와 분리된 채 오직 개인의 구원과 번영에만 몰두하며 기독교 영성적인 삶과 세속의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직 성장의 틀에만 갇혀,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의 웰빙과 행복만을 탐해왔다. 새로운 위상 설정에서 엑소더스해서 타자를 위한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코로나가 교회의 본질을 향한 엑소더스의 기회가 될 줄로 믿는다.

sondongwo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망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718) 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회: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p> <p>Tel. (718) 265-2584, www.l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화-토)</p> <p>Tel. (917) 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 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 461-2810(Fax: 경음),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pcny.org, Tel. (516) 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p> <p>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청년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안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58, www.baysidechurch.com/V2/ 45-62 21st St,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30분) 주일2부 오후 1:45(30분) 주일학교 오후 1:45(30분) 청년예배 오후 3:12(2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 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 886-4040, www.kapc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목회서신

AI 인공지능도 아는데

우리는 인공지능(AI) 시대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대세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물건들이 날마다 새롭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 본 내용들이나 영상들을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나의 관심사를 미리 알아서 알려주니 편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행동이 알려지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2016년 이전까지 인공지능 컴퓨터와 바둑 고수가 바둑을 두면 사람이 이긴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사람이 속임수를 쓰는 수를 두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는 사람이 컴퓨터에 입력한 정보들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자가학습이라는 기술을 통



김요섭 목사 (별매교회)

해서 사람이 컴퓨터에 입력한 정보들에 국한해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고, 사람이 입력하지 않은 범위까지도 스스로 터득해서 작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도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1956년에 스탠포드대학교 존 매카시 교수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과학 철학에서는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많은 컴퓨터과

학자나 인지과학자들은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온도조절장치는 최소한 세 가지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춥다," "너무 덥다," 그리고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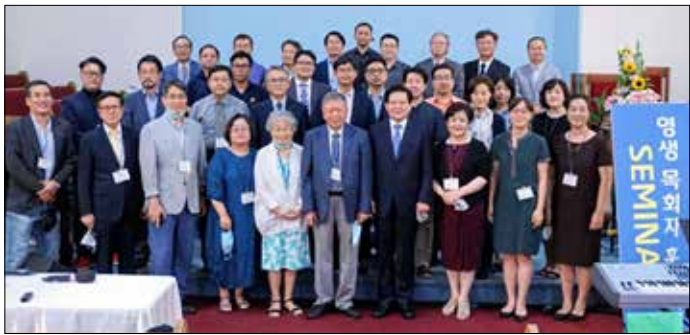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 1984년에 UC 버클리대학교 철학교수인 존 서얼은 그의 책 "생각, 뇌, 그리고 과학"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각'과 인지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컴퓨터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컴퓨터가 사람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얼 교수도 컴퓨터가 사람과 같은 의미에서의 생각은 하지 못하지만 컴퓨터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서얼 교수의 말대로 사람의 생각은 단순한 말과 언어들의 조합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언어, 감정, 의미,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얼 교수의 지적처럼 사람이 쓰는 '생각'이라는 말과 컴퓨터에게 적용하여 쓰는 '생각'이라는 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를 사람과 컴퓨터에 동일시 적용하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비록 사람의 생각과 컴퓨터의 생각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에게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신은 존재하나?" 인공지능의 대답은 아주 명확하였습니다. "그럼요."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인공지능이 대답하자 그럼 신을 본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없어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신을 본 적이 없는 인공지능이 왜 신의 존재를 믿는지 물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인공지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최선이니까요. 여전히 확신합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물인 컴퓨터의 인공지능도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더 현명하

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신이 존재한다면 신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일단 신의 존재를 믿고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인공지능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시14:1) 암울하고 악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공지능의 확신보다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심판을 믿는 삶이 분명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의 세상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살아가게 시키는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songkpk@hotmail.com



영생목회자훈련원이 주최한 목회자 위로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영생목회자훈련원 이용걸 목사, 목회자 위로 모임

영생목회자훈련원 대표 이용걸 목사와 스텝들이 지난 8월 10일 뉴저지동산교회(윤명호 목사)에서 30여명의 목회자 부부 초청모임을 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치진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이 모임에서 목회의 영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맛있는 식사와 위로금과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용걸 목사는 오전에 개회예배 설교와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가 갖춰야 할 자세를 나눴다. 오후에는 조문휘 목사(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과 우장환 장로(영생장로교회)가 먼저 세미나를 인도하고 이어서 이용걸 목사가 팬데믹 시대의 목회아이디어에 대한 강의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조문휘 총회장은 팬데믹 시대에 총회가 나서서 어려운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도왔으며, 더 중요한 차세대교육도 돕고 있다고 전했다. 그 방법은 총회내 교육 프로그램을 잘하는 교회들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조 총회장은 팬데믹 시대에 정기총회도 온라인 화상으로 열었으며, 목회자연장교육도 온라인으로 하는 등 온라인 사역에 오히려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우장환 장로는 "팬데믹 시대는 두려워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소망인 예수를 전할 환경이 오히려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시각적 효과가 강한 큐브를 사용해 대면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과 비대면으로 카톡을 통해 좋은 글

과 '지저스 필름'의 짧은 영상을 보내 관계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했다. 이용걸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목회 아이디어에 대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배를 강조하고 "현장예배든 온라인예배든 하나님면전에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팬데믹시대 설교는 짧아야 한다 △헌금은 직접 하라는 말보다 (재정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로 표현하라고 조언했다.

이 목사는 또 "팬데믹시대는 신앙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므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상관없게 된다. 가정예배를 강조하고 거리두기 심방, 온라인 심방 등을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며 "유럽이 전염병 시대에 기독교인의 희생 모습으로 교회가 부흥한 것을 기억하고 일사각오의 자세로 목회하라"고 전했다. 이용걸 목사는 2016년 필라 영생장로교회 35년 목회를 마무리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됐으며 이후 영생목회자훈련원을 세우고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모토아래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 세계를 돌며 후배 목회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아메리카 한인연합재단 제75주년 광복절 및 72주년 건국기념식 및 감사예배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감사예배 제75주년 광복절 및 72주년 건국기념식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은 제75주년 광복절 및 72주년 건국기념식 및 감사예배를 15일 정오 S. S. Lane Victory 선상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정일 선교사(키르키스탄) 사회로 금병달 목사(서울대학교목회자협의회 회장)가 대표 기도하고 최희량 목사(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군목협의회 회장)가 '바울의 동족애'(롬9: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대한민국의 시작은 그 시작과 과정을 보면 참으로 험악하고 힘이 많이 들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원자탄을 투하하고서야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됐다"고 말하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정신을 바짝 하라"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차리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 국민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국민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창호 목사(기독교스 LA지사장) 축도로 제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는 제7차 애국집회 및 건국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은 애국가 및 미국국가를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조용규 전 의원이 기념사를 했다. 이어서 이우호 목사(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가 등단해 "건국 72주년을 맞아 온 세계 동포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자"고 외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감사한인교회 야외예배에서 구봉주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감사한인교회 야외 현장예배 실시 16일, 온라인예배 전환 후 4개월여 만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는 주일현장예배를 16일 오전 11시30분 교회 주차장에 마련된 텐트에서 야외예배로 실시했다. 구봉주 목사는 "팬데믹 상황에서 현장예배가 중단된 상황에서 온라인예배를 갖게 된 것을 모두 기뻐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후 예배에 대한 자세가 풀이되고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당하게 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말했다. 구 목사는 "상황이 어려워져 마음이 놀라웠고 신앙의 상태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소극적이 돼버린 상황을 극복해야겠다. 목회자로 어떻게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성도들이 가까워지고 신앙 생활을 활력있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실외예배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구봉주 목사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노준중 장로 기도, 성가대가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날 구봉주 목사는 '돌파하라(시13편)'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구봉주 목사는 "다윗은 고난을 대하는 특별한 지혜가 있었

다. 첫째, 마음을 지키기에 힘썼다.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진다.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잃어 버리게 된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씨름해야 하며 그것이 지혜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기도했다. 믿는 자에게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지난 생활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신다.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자.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길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치유와 축복기도를 했으며 찬양 후 구봉주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감사한인교회는 코비드19으로 인한 행정명령이 발동된 3월 22일부터 모든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며 8월 첫째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했고 이날부터 주일예배를 야외예배로 하게 됐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치매가족돌봄교육 화상세미나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치매가족돌봄 교육을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화상세미나로 진행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치매환자들의 가족과 간병인들을 위한 여러 활동 중 하나로 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치매가족돌봄 교육'은 시리즈 교육으로 알츠하이머 오렌지 카운티협의회와의 협력사업으로 실시됐다. 이 교육 시리즈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며, 참여자 간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이 교육시리즈 이번 주제는 "성격과 행동 변화: 왜,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소망의 김미혜 사무국장이 진행했다. 김미혜 사무국장은 "가족이나 간병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치매환자의 행동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치매환자를 둔 가족이나 간병인들이

많이 참석해 새로운 팀을 얻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9월에는 "공감하는 대화: 새로운 이야기 방법" 주제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당분간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 시리즈는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ociety.org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미주크리스찬문협 제37주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문학상, 신인상, 독후감 시상식 가져 미주크리스찬문협 제37주년 행사, 31집 출판기념회도

미주크리스찬문협(이사장: 정지윤, 회장: 류민호)에서 지난 8일 오전 10시 로텍스 호텔 야외 행사장에서 제37주

년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제2회 크리스찬 문학상 시상식 (최선호/시, 김영애/수필, 홍영욱/소설)△

제34회 크리스찬문학 신인상 시상식 △제2회 신앙도서 독후감 시상식 △크리스찬 문학 제31집 출판 기념회 등이 동시에 열렸다. 제1부 예배는 정지윤 이사장 사회로 최선호 목사가 대표 기도하고 최희량 목사(새창조교회 원로)가 설교했다. 최 목사는 김숙영 교수(대한신학교)가 특송을 부른 후에 등단해 '밀알의 원리'(요12:2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각종 류별로 임하신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조국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 고수한 단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밀알들이 돼서 그 단계를 넘어가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제 2부는 정지윤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최선호(시인 평론가) 하정아(수필가) 김상분(소설가) 등이 작품 심사평을 하고 시상식을 했다. △시 당선자: 김대웅(봄이 오면) △수필: 레베카 김(죽음과 시작) △소설: 김병학(어머님의 눈물) △신앙도서 독후감: 정종일(다섯가지 사랑의 언어). 이어서 방동섭 목사(기독교문인협회 회장), 박철규 박사(전 장로협의회 회장) 등이 축사하고 구영미(분회 부회장) 씨가 바이올린 연주를, 김창호 목사(기독교스 LA지사장)가 마당기도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나의 살던 고향'을 제창한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15)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6-2)청교도 신앙 회복과 대각성 (Great Revival) 부흥을 위한 “오직 성령”(Solus Spiritus Sanctus: Holy Spirit Alone)

칼빈(John Calvin)이 개혁주의적 성령론의 터를 잡았다면, 청교도(淸敎徒)들은 그 터 위에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성령론을 전개(展開)한다. 칼빈이 구원에 관여(關與)된 지적(知的) 성령론에 집중했다면, 청교도(Puritan)들의 성령론은 삶과 깊게 연관된 성화론적(聖火論的) 성령론에 집중한다.

칼빈이 구원에 개입(介入)하는 성령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었다면, 청교도들은 구원반에 성도의 삶, 즉 성화의 문제에 있어 성령(聖靈)의 역사(役事)가 강조되었다.

1)16세기말에 성경적 기독교를 회복하고자한 대표적 청교도 학자요 경건한 칼빈주의자요, 방대한 저술가요, 전도자인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는 18세기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와 19세기 부흥사인 찰스 피니(Charles Grandison Finney)처럼 회심 체험 후 전개한 열정적 구령(救靈) 운동가였다.

2)리처드 시بس(Richard Sibbes, 1577 - 1635)는 영국의 신학자이자 성경 해석학자이다. 칼빈주의 언약신학을 고수하였으며, 토마스 후커, 존 웨슬리, 찰스 스펄전에게 영향을 주었고, 존 코튼은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다. 이와 같이 후대의 수많은 청교도 설교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리처드 시بس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뿐 아니라 말씀을 따르거나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매우 중시했다. 즉, 말씀과 성령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시بس의 성령론은 영국 청교도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의 불후의 명작인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The Bruised Reed and Smoking Flax,1630)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영혼을 ‘상한 심지와 갈대와 같이 꺾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다.

3)17세기의 가장 탁월(卓越)한 청교도 신학자로 꼽히는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 1600-1680)은 6세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감동하여 눈물을 많이 흘린 참 성도였으며, 흑사병이 런던에 퍼질 때 생명을 보존하고자 교회지도자들이 런던을 떠났지만 굿윈은 끝까지 죽어가는 환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행동하는 성령의 신앙인이었다. 그는 믿을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 봤다.

4)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은 1677년에서 1678년 사이에는 성령론(Discourse on the Holy Spirit)을 출판하여 성령의 인격성과 사역을 논하고, 성령은 기록된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주장했다. 청교도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야말로 성령께서 직접 이루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5)청교도의 참 목자상인 리처드 박스터(Richard Baxter 1615-1691)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처럼 진리를 선포한 성령의 사람으로 오순절 성령의 불길처럼 대각성의 역사가 그의 사역지 키더민스터(Kidderminster) 영혼 속에서 타 오르게 했다.

6)미국 영적 대각성 마지막 청교도(淸敎徒)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는 칼빈의 성령론을 전제하면서, 청교도들의 성령론을 대부분 수용하며 계승한다. 그는 성령이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에도 그의 교회에 역사하는 것을 믿었고 부흥성회



이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은 사실 1720년부터였고, 그 대각성의 부흥의 불을 지피고 그 불을 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네덜란드 출신 테오도르 프렐링후이젠(Theodorodorus Frelinghuysen, 1691-

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력과 갑작스럽고 극적(劇的)인 회심(悔心)을 믿었다. 또한 그는 대각성 신앙부흥의 본질에 대해 내적 6원칙을 요한일서 4장 1절 주석을 통해, “신앙공동체 내에서 경건의 활력을 되살리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상한 역사가 열매가 없이 잠자고 죽어가고 있는 신앙공동체에 대하여 성령께서 일깨우심으로 영적 감각을 되살릴 수 있고, 오직 성령의 부여 주심에 의하여 신앙은 부흥된다”라고 했다.

미국 1차 청교도 대각성운동이 1730년대에 불붙기 시작했을 때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주도적인 일을 하였다. 조엘 비키(Joel R. Beeke)와 정준기는 “

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뉴욕과 특히 뉴저지를 중심으로 한 대부흥을 이끈 선각자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와 같이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 프렐링후이젠, 길버트 텐넌트(Gilbert Tennent),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 대각성운동이 일어났고 교회는 급성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뉴잉글랜드(New England) 교회인데 “30만 인구의 뉴잉글랜드에 부흥운동이 한창이던 해인 1730년대 말 2년 동안 25,000명이던 교인은 50,000명으로 약 10%가 불어남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초대 청교도들의 염원이었던 ‘언덕 위의 도시’의 놀라운 역사가 실현되었다.

영국 청교도의 거목들인 윌

리암 퍼킨스, 리처드 시بس, 토마스 굿윈, 존 오웬, 리처드 박스터와 제1차 미국 청교도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요 성령의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十字架) 은혜와 함께 선포될 때 진정한 대부흥(大復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 영적 대각성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Man of God)을 통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어왔다. 부흥운동은 성령의 영적 각성이 선행되었을 때, 구령(救靈)의 열정(熱情)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즉,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죄성과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되면 자연히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마련이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웨슬리의 복음주의 부흥운동, 찰스 피니로 대변되는 2차 부흥운동, 19세기말의 무디 부흥운동, 그리고 20세기 초엽의 웨일스 부흥운동

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에드윈(Edwin)이 지적한 대로 복음주의 영적 각성 운동은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즉, 부흥운동은 기도와 성령의 임재로 특징되는 영적 각성(覺醒)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그 당시 19세기말과 20세기 초 나이아가라 사경회든, 무디 부흥운동이든 학생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이든 혹은 성결운동(Holiness Movement)이든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던 부흥운동의 영향을 직, 간접으로 받은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교도 신학과 사상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며, 오직 믿음(Sola Fide)이며, 오직 은혜(Sola Gratia)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이며,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와 더불어 “오직 성령(Solus Spiritus Sanctus)의 역사를 매우 함께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오직 성령(聖靈)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에게 생명(生命)을 줄 수 있는 믿음과 회개(悔改)를 자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신학과 사상

칼빈은 구원관련 지적 성령론에 집중, 청교도들은 성화론적 성령론에 집중 청교도들은 종교개혁 사상과 신학을 체계화시키고 삶 속에서 완성하려 해

이 바로 그것이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에서도 1903년의 원산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의 백만인 구령운동 등 세 차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한국교회에 일어난 이 세 차례의 부흥운동 역시, 한국교회의 놀라운 교세 신장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사를 특정 짓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된 대각성, 부흥운동의 공통적 특징은 기도(祈禱)와 성령 임재를 통한 충만의 역사라는 것이다.

미국 제 1차 대각성운동의 주역 에드워즈의 고백처럼 “부흥운동은 결코 인간적인 어

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청교도 신학과 사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청교도(Puritan)들은 종교개혁자의 사상(思想)과 신학(神學)을 체계화(體系化) 시키고 그것을 이론(理論)이 아닌 진정 삶 속에서 완성(完成)하고자 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엘 비키 ‘개혁주의청교도영성’, 오덕교 ‘청교도이야기’,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차영배 ‘성령론’, 알렌카든 ‘청교도정신’, 서요한 ‘청교도유산’, 정준기 ‘청교도인물사’, 이상용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론’, 김경일 ‘종교개혁 500주년’ 이의 다수.

kimjyoh@hotmail.com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banner with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and 'Midwest University' logo. Below the banner, it lists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and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It also includes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with a list of 4 points regarding international student visas and online learning.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in campus in Wentzville, MO and the Washington DC campus is provided at the bottom.

차별금지법 철회위한 ‘한국교회기도회’ 출범

한교총, 전국적 월례 조찬 기도회 조직 대응기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12일 ‘한국교회기도회’를 출범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철회를 위해 각 교계와 연합해 대응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월례 조찬 기도회를 조직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입법 저지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교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은우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를 가졌다.

한교총은 이날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전국 지역 기독교 연합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국교회기도회’를 출범했다. 한국교회기도회 참석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선언’에서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출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권고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역사적 요소가 담긴 해당 법 제정을 철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교회기도회를 구성했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법 교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이

혼란을 돌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교회 중심으로 한국교회기도회를 조직해 정파적 편파성을 배제하고 법 교회적으로 연합해 활동하기로 했다.

한국교회기도회 추진위원회는 먼저 전국적 기도회를 조직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철회를 위한 뜻을 모은다. 국회가 위대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점 기도회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거점교회에서 월례 조찬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기도회는 교단별로 주관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 기독교 연합회 차원에서 기도회를 조직해 활동하기로 했다. 이들은 중심으로 지역 구 국회의원을 방문해 반대 의견 전달에도 나선다. 교회별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와 철회 요청이 담긴 현수막을 교회 건물 내외에 부착해 지역민을 상대로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다.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당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목표로 활동하거나,

본회의 상정을 거론할 때는 한국교회 차원에서 입법 철회를 위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고 국회와 국민에게 한국교회의 입법 저지 의사를 강력히 호소하기로 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앞선 1부 기도회 설교에서 포도 안으로 들어온 작은 여우가 농사를 망치고 포도밭을 황폐시킨다는 성경 속 비유를 들며 한국교회의 경계심을 전했다. 그는 “기독교는 성 소수자를 혐오하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의 공회와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 독소조항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작은 여우처럼 가정, 신앙, 성경의 가치를 짓밟으려고 하는 행위를 경계하고 쫓아내자”고 말했다. 또 적극적으로 ‘성 소수자를 위한 치유와 상담센터’와 ‘사회적 약자 돌봄 기관’을 설립해 해당 법에 유보적인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도록 양면을 보듬어 가자고 했다.

이어서 특별강연에서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해당 법이 평등원칙을 사적 분야로 적용해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입법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상 담은 개혁 헌의안 눈길

예장통합 9월 총회, 공유예배당 제도 마련 헌의안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의 서울북노회는 다음달 열리는 총회에 공유예배당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헌의안을 올렸다. 헌의안은 개별 노회가 총회에 보내는 안건으로 총회 대의원(총대) 다수가 찬성하면 제도로 구현된다. 국교회로 치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같다. 헌의 제도는 장로교 정치의 핵심이다.

서울북노회장 한봉희 변동평화교회 목사는 11일 “일반 교회 안 예 문화 사역이나 다음세대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교회가 새로 들어와 공간을 같이 나눌 수도 있다”면서 “공유예배당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동일 주소에 관한 법적 문제 등을 총회가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서울동노회 서울동북노회 총남노회는 ‘청소년 주일’을 제정하자고 헌의했다. 서울동노회장 민경

운 성덕교회 목사는 “총회 주관의 기념 주일이 많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념할 주일은 없다”면서 “약화하는 주일학교 가운데 특히 중고등부를 응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관악노회는 총대 수를 1500명에서 700명으로 축소해 달라는 안건을 냈다. 국회의원 정수 축수와 마찬가지로 총대 수 축소를 통해 과도한 비용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자는 것이다. 서울관악노회장 이경희 상도중앙교회 장로는 “앞서 2020년부터 총대 수를 1000명으로 줄이자는 헌의안도 있었다”면서 “이와 별도로 여성과 청년을 위한 비례대표제 강화 등의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로는 통합 교단의 첫 여성 장로 출신 노회장이다.

많은 노회의 뜻이 집중된 헌의안은 제104회기 명성교회 수습전

권위원회 수습안 철회의 건’이다. 서울노회 서울서노회 서울강남노회 전북노회 군산노회 전남노회 순천노회 순천남노회 제주노회 부산남노회 평북노회 용천노회 등이 각각 헌의했다. 교단 헌법과 재판 결과를 뛰어넘어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결정을 2021년 이후로 미룬 지난해 총회의 의결을 무효로 하자는 취지다. 동성애대책위 상설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C)에 대한 입장 정리 등을 요구하는 헌의안도 다수 나왔다. ‘용서·화해의 날 제정’ ‘다자녀 출산장려 특별위원회 구성’ ‘노회엔 이단 상담소, 총회엔 이단 전문가 양성기관 설치’ 등을 촉구하는 이색 헌의안도 접수됐다.

예장통합은 다음 달 21-22일 서울 도립교회(명명철 목사)에서 제105회 정기총회를 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3박 4일 일정을 1박 2일로 단축했다. 헌의안 접수는 오는 20일까지다.

“광복절, 세계 평화의 날로 승화시키자”

평통연대, 광복 75주년 기념 성명 발표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평통연대·상임대표 강경민 목사)는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을 핵무기 없는 아시아의 평화를 갈망하는 평화추진의 날로 승화시키자”고 제안했다.

평통연대는 12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평통연대는 성명에서 “광복절은 반일 극일 항일의 슬로건을 넘어 한국이 아시아 평화를 불러내는 협력의 자리”라면서 “이

를 위해 일본이 과거 역사적 만행을 청산하고 세계평화 국가로 거듭나도록 격려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 군국주의 영광을 복원하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미국, 한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 시민사회는 아베 신조 총리가 과거와 같은 한반도 침탈을 꿈꾸지 못하도록 막고,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에 동아시아 평화와 한·일 관계를

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화와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의 제약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의료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통연대 운영위원장 김영식 유코리아뉴스 대표는 “한국교회는 과거 신사참배 등으로 폄박받은 역사가 있어 여전히 일본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며 “평화를 지향하는 일본교회와 연대해 일본이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화해의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강경민 목사는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며 “한국교회가 피스 메이커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의 성’ 포함 위헌적 요소 있어 반대”

예장통합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관련 성명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는 반대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의 성명이 나왔다. 세심한 법안 검토 끝에 법안에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담겨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냈다.

예장통합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통합 총회 임원과 동 전국노회총협의회 이름으로 공동 발표된 성명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로 시작한다. 한국교회가 차별행위에 찬

성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성명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제안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어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법안이 여성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은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의 성을 제안하고 있어 동성애 등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동성애나 이단을 반대하는 것이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로 인식돼 처벌 받을 수 있는 등 헌법상 학문·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성애에 반대할 자유에 위촉 효과를 불러오는 점과 법안에서 정한 규제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예장통합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성별 장애 연령 인종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19개 이상 있는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 제정하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며 “유신시대 긴급조치처럼 헌법까지 제약하는 법안이어서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노회총협의회장 권위영 목사는 “총회 임원과 전국 68개 노회장은 물론 260만 성도들의 뜻을 모아,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다음 달 21-22일 서울 도립교회(명명철 목사)에서 열릴 제105회 총회 방역 준비 상황도 공유했다. 총회 대의원 1500명이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2곳의 신·구 예배당에 분산해 총회를 진행한다. 도립교회는 예배당 오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총회 직전 2주간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차별금지법 토론회’ 비난 말라”

기공협, “사회적 합의 위해 필요” 성명서 발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의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를 비난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기공협은 성명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찬반 토론회를 거쳐야 한다”면서 “김희재 의원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

별금지법 토론회를 ‘극우니 반인권적’이라는 말로 비난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경청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토론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법인지지를 논하고,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법인지 논하는 자리”라면서 “찬성론이 있으면 반대론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폭을 좁혀가는 과정을 도출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과 대화의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헌법적 가치·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김희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이 주관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은 지난 12일 “당 소속의 여러 의원이 현재 차별금지법 입법에 동참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별금지에 반대하는 것은 당의 기본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부정이며 해당행위”라며 토론회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검찰, 이만희 교주 구속기소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에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 검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교주를 구속기소 했다. 신천지 간부급 관계자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측 인원은 이 교주를 포함해 모두 19명이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수원과 안산 등의 공공시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이 교

주는 경기도 가평군 내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 신축 당시 50여 여원의 신천지 집단 자금을 가져다 쓰고, 5-6여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에 이 교주 측은 13일 진행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형사11부는 이날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교주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도권교회, 비대면 예배 외 모임·활동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인천으로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8일 오후 2시 열린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다. 이밖에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역을 서울과 경기 외에도 인천 지역까지 확대했다.

정 총리는 “현재 가장 큰 집단감염 사례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명부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와 격리가 필요한 교인 및 방문자들을 신속히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교인들이 전국에 분포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 총리는 “수도권 소재 교

복음광고·IT선교 손잡고 비대면 전도활동

복음의전함·기술과학전문인선교회 업무협약

복음의전함(이사장 고경민)이 11일 한국기술과학전문인선교회(FMnO)와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 캠페인 업무협약(사자)을 하고 복음광고와 정보기술(IT) 선교를 연계해 비대면 전도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도와 선교의 어려

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복음을 확장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곳곳의 복음심기 캠페인 업무협약(사자)을 하고 복음광고와 정보기술(IT) 선교를 연계해 비대면 전도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도와 선교의 어려

월까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 전국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버스나 택시 각 1000여대에 복음광고가 게재된다. 복음광고를 접한 사람들은 온라인 검색을 통해 FMnO에서 운영하는 ‘빌리그라함 온라인 선교 플랫폼’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연결된다. 홈페이지에서 ‘4영리’에 기초한 콘텐트로 복음을 접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e-코치가 신앙적으로 양육한 뒤 거주 지역 내 건 강한 교회로 안내한다.

“복음을 정치집단도구로...전광훈 목사 조치하라”

한성연, “법고단적 공동대처 미흡 책임통감” 성명 발표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대표회장 한기채 목사)는 최근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국교회와 법고단적 공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성연은 18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방역에 최선을 다해왔던 한국교회가 감염 확산의 원인처럼 지목된 상황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감염병 퇴치를 위해 교회가 사회의 모본이 되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한성연은 감염 증폭 원인의 공공자민 전광훈 목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했다. 지난해 8월 한국교회의 주요 8개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총협의회가 공교단들에

게 전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판정할 것을 요청했다. 전 목사의 이전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에서는 전 목사를 제명했다.

한성연은 “복음을 특정 이념과 정치 집단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

씨에 대해 주요 공교단들이 분명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감염이 더는 퍼지지 않도록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성연은 한국교회에 소모임과 식사 모임 금지는 물론 각 교회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했다.

“일부 교회가 지역 감염 확산 통로된 점 사과”

한교총,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행보에 유감 표명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최근 교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주요 교단의 행정력 범위 밖에 있는 개별 모임과 일부 목회자의 정치적 행보를 꼽고 유감을 표했다.

한교총은 18일 발표한 ‘코로나19 19 회 사태에 대한 본회의 입장’에서 “국내 최대 7만5000여개에 이르는 기독교회는 코로나19 방

조치는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 총리는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출퇴근과 같은 필수적 외출 외에는 기금적 집에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며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은 법 위반 상황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역지침을 준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 감염의 통로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는 대부분 주요 교단의 행정력 범위 밖에서 독립해서 운영하는 작은 모임들과 전광훈 목사 측의 정치적인 행보로 인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 목사가 사무 중인 사랑제일교회 측은 “본연의 종교활동을 넘어 정치 집단화되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다”며 “조속하게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교인들이나 방문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방역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교총은 “최근 몇 교회가 방역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교인들과 지역사회에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방역에 이전보다 더욱 힘을 써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ssion 선교의 창 (152)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Mr. Mission의 호칭을 받은 고 조동진 목사

한국교회의 선교를 논할 때 조동진 목사를 빼 놓고 말할 수 있을까? 그는 피선교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선교국으로 탈바꿈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전략가요 동원가이자 실천가였다. 조 목사의 선교적 공로는 비단 한국교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제3세계의 교회들이 자립적으로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서구권 교회들도 조 목사가 있기 전까지는 선교가 오직 그들만의 전유물처럼 인식했다. 조 목사는 확실히 랍프 윈터 박사와 대비할 수 있는 비서구권의 선교적 대표주자였다. 신기하게도 두 사람의 출생은 1924년 동갑내기였다. 이제 두 영적 거인은 세상을 떠나고 없다. 하지만 그 분들이 창안해놓은 저술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그 문헌 속에는 선교에 대한 방향과 전략 등 옥구슬 같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Covid19 영향으로 세계선교의 수레바퀴가 멈춰 있듯 한 이때 제 2, 3의 선교전략가들이 출현해 선진자들의 맥을 이으며 발전적으로 승화시키기를 기대한다.

1950년대는 선교학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때였다. 조 목사는 1959년 미국 캔터키 주주의 애즈베리 신학교(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 선교학 석사과정을 신청했다. 그때 선교학은 역사학부에 속해 있었다. 그는 역사학 부장교수 앞에서 면접

들만의 몫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 목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교회가 조만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떠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2. 조동진 목사의 생애

조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생후 2달도 안 되어 유아세례를 받은 나는 현금 한 푼도 깨닫지 못하며 바지치기 하던 어머니, 무릎 꿇고만 기도하게 하던 아버지, 밤마다 성경을 암송하고서야 자리에 들게 하시던 부모님,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시던 아버지,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던 어머니, 나는 이처럼 조금도 마음을 밖으로 돌릴 여유를 주지 않으시던 부모님의 철저한 청교도적 교육 영향 아래서 내 성격이 형성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세상으로 나간 목사”

3. 공로

그는 선교적 열정으로 1961년 한국교회 최초로 선교학을 총회신학교에 선택과목 교과과정으로 설치했다. 1963년 국내 최초로 선교대학원인 동서선교 연구개발원(EWC)을 세웠고, 같은 해 초교과 세계선교단체인 국제선교협력기구(KIM)를 설립해 1500여명의 선교사를 양성했다. 또한 1973년에는 아시아선교협의회(AMA) 창립을 주도했으며,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복음화국제대회' 전체회의 '선교 구조의 쇄신' 감사였다. 1988년에는 제3세계선교협의회(EWC)를 설립해 1995년까지 회장으로 섬겼으며 말년에는 '조동진선교학 연구소'를 설립했다.

고인은 1999년 만 75세 되던 해에 그가 설립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바울의 집'을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 선교학이 왜곡시켜 놓은 메시지를 고쳐 사도적 DNA가 계속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제7회 KWMC 선교대회).

둘째, 하나님의 왕국(God's Kingdom)을 위한 선교를 하라는 것이다. 서구선교의 일방통행적 선교와 한 국가에 안주하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여 온 것은 성서적 선교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식민지 세계관에 의한 선교구조를 갱신하기 위해 “쌍방향적 선교”와 “광역선교”라는 모델을 주장했다(Ibid., pp. 328-328).

셋째, 현지 문화와 백성들을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라는 것이다. 선교사가 그 나라 민족과 동일시되는 것을 꺼리고 차별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선교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이다(Ibid., p.216).

넷째, 돈으로 선교하지 말고 사랑으로 선교해야 한다고 가

지금은 그 숭한 교회들의 옛터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그는 1989년에 24회나 북한을 방문했다. 김일성 주석과 세 차례에 걸친 단독회담도 가졌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교 종교학과 초빙교수와 평양신학원 초빙교수로 임명되었다.

이처럼 조 목사는 통일선교를 위해 열정적으로 힘을 보탰다. 허나 안타깝게도 그는 조국통일을 보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다. 북한 땅을 바라보며 조국통일을 염원하던 그의 한(恨)이 언제나 이루어지려나?

맺음 말

조동진 목사는 우직하다고 비난받을 만큼 흔들리지 않고 세계선교를 위한 한 길을 달려왔다. 그 헌신으로 인하여 한국과 제3세계 교회는 선교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에게도 카리스마가 너무 강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과(過)는 공로에 대비할 때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교회 선교의 대부이자 선구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가 없었다면 서구교회 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선교의 틀을 누가 깰 수 있었을까?

조 목사는 이제 소임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겼다. 그가 노후에 한 고백이 마음에 다가온다. “나는 날마다 바울의 집 동산에 우뚝 솟은 하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 바울의 집 언덕위에 홀로 앉아 있어도 절대로 고독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한이 없는 나의 삶의 발자취 때문일까? 지구상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 후예들의 사랑과 기도 때문일까.”

jrson007@hanmail.net

현대선교에 있어서 탁월한 전략가 2명이 있었다. 서구권의 Dr. Ralph D. Winter와 비서구권의 Dr. 조동진 목사였다. 조 목사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선교적 빛장을 열어 제쳤다.

을 했다. 그가 전공계획을 설명하자 “동양인이 왜 선교학을 전공하려고 하는가?” 물었다. 이에 “선교는 백인들만의 일인가?”고 되물었다. 담당교수는 “그것을 몰라서 묻는가?” 라는 눈초리로 위아래를 훑어보다가 마치못해 신청한 과목에 사인을 해주었다. 부장교수는 학위를 마칠 때까지 조 목사를 괴롭게 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81년 애즈베리 신학교의 교수회의에서 조동진 목사를 “제3세계 선교의 기수”라고 칭찬했다. 나아가 그에게 “Mr. Mission”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여기 일화에서 보듯 20세기 전반기까지 서구교회는 선교를 그

p.341). 조 목사는 1924년 평북 용천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조덕천이다.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애즈베리신학교 대학원(석사), 윌리엄켄디대학교 대학원(박사)을 졸업했다. 그는 후암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중 선전의 유업인 통일의 길을 이어가기 위해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선교에 매진했다. 그는 금년 작고하기까지 60년간 한국 선교와 제3세계 교회가 선교적으로 거듭나도록 헌신의 힘을 다 하였다.

조동진 목사는 2020년 6월 19일 오전 이 땅에서의 과업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향년 97세였다.

회(GMS)에 헌납한 후 은퇴하고 모든 선교 공직에서 물러났다. GMS는 이 같은 고인의 선교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 후학들과 후배 선교사들을 위하여 지난 2009년 5월 8일 GMS선교센터 내에 '조동진 선교기념관'을 개관하기도 했다.

4. 주된 사상

조 목사는 한국교회가 계승발전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는 사도적 DNA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초기 대부흥의 뿌리가 된 것도 사도적 DNA가 있었기 때문이고 1912년 중국 산동선교의 역사적 배경에도 사도적 DNA를

르쳤다. 하나님의 선교가 어느 사이에 자기 선교가 되고 하나님나라 사업도 자기 사업으로 변하고 있음을 우려했다(Ibid., p.337).

5. 마지막 염원

조 목사의 고향은 평안북도 용천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북녘 땅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그의 마지막 경주는 북한의 소멸된 교회들의 교투기를 소생시켜 민족의 교회로 되살리는 것을 보는 일이었다. 옛날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일컫던 평양과 고향 산천에는 3,000여 교회와 30만 신도가 있었다. 현대 명성은 어디가고

드라마 예언서 (5)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인 호세아서, 아모스서, 요나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서를 비롯하여 남방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읽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배경

열왕기하 17장에서 북방 이스라엘이 앗수르 살만에셀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후 북방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던 열왕기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남방 유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남방 유다에 와 보니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삼킨 앗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여 남방 유다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율리아 왕(히스기야의 증조할아버지)이 죽던 해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인 요담이 왕일 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히스기야를 지나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다스리기 시

작할 때까지 BC 740-BC 680년까지 약 60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예언서(the prophet)이며,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언(Predict)의 범위는 남방 유다의 멸망(이사야 당대로부터 약 120년 후)과 신흥 바벨론의 멸망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사 64-66장)까지

이사야서: 남방 유다와 신흥 바벨론의 멸망, 요한계시록 내용 예언 1-39장-구약적 심판 내용, 40-66장-신약적 회복의 내용

지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는 관점

이사야서도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시니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읽으면 쉽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1장-39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말씀하시고(구약적인 심판의 내용), 40장-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신약적인 회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

율리아로부터 시작하여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1:1). 남방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인하여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장기처럼 세상과 섞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를 받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1:21-31).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는 '여호와와 날'에는(2장)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3장).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결케 하실 것입니다(4장).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을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었는데, 그들

의 불신앙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람의 군대와 북방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어 남방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알려주었지만,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앗수르를 의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왕하16:7 참조)라고 말하여 그의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을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사11장)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것을 말씀하

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찬송의 날(25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26장).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저들이 돌이키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그들을 통치할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시온을 위하여 속량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28-35장).

구약적인 심판의 메시지에서 신약적인 구원의 메시지로 넘어가는 부분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앗수르에게 시달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37장). 또한 병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전한 것처럼 그 분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불드신 종 메시야는 이방에 정의를 베푸시고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42장). 그 메시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43장). 그 분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44-51장).

그 메시야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도살당하는 양처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입니다(53장).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메시야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55장).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희생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56장).

메시야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는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방에 전파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60장부터 이어집니다. 복음의 빛은 이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기에, 거저써처럼 작더라도 점점 왕성해질 것입니다. 즉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60장). 복음을 통하여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제사장'입니다(61-62장).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64-65장).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와 나의 말이니라"(사66:22).

dsukim@gmail.com

은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아끼시며 가꾸시며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길 바라셨지만 그들은 포학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봅니다. 스랍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으실 때 이사야가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6장). (당시의 왕은 아하스였는데,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

고 있습니다(12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아하스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온 열방까지 심판하실 수 있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유다 주변의 열왕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13장-23장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바벨론 심판(13장), 앗수르 및 블레셋 심판(14장), 모압 심판(15-16장), 다메섹 심판(17장), 구스 심판(18장), 애굽 심판(19장),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심판(21장), 두로와 시돈 심판(23장)을 예언하십니다. '그 날'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24장)이지만 믿

겨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38장)과 히스기야의 행적(39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는 회복과 구원의 신약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하여 여호와와 길을 예비합니다. 마치 세례요한의 등장을 보는 듯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분이 강한 자로 임하셔서 다스리시며,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먹이고 품으실 것"입니다(40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택하셨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41장).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사마리아를 에워싸니(왕하6:20-24)

우리는 엘리사 한사람을 죽이기 위해 온 성읍을 에워쌌던 아람군대가 오히려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멀어 포로가 된 통쾌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포로들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오히려 먹을 것을 먹여 돌려보내니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순간 순간 능력을 베풀어주십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늘 넉넉하고 여유 있게 무슨 일이든지 대처합니다. 진정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왕하6:24-27)

그 당시는 가뭄 때문에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아람군대가 쳐들어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주려서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가뭄과 아람군대의 포위 때문에 너무 극심한 고통을 맞게 되니까 한 여인이 왕에

게 가서 도와달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왕은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펜데믹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왕하6:28-33)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더니 결국은 다른 여인과 서로 죽은 아들을 먹자고 하다가 자기 아들을 숨긴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들어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야겠습니다. 본문에 이스

라엘 왕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속에 굶은 배를 입었습니다. 전형적인 회개하는 모습인데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잘못을 엘리사에게 돌리며 엘리사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엘리사가 기적으로 아람군대를 파멸시킬 때는 엘리사를 높이더니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성도는 신앙정절을 지키고 함께 신앙의리를 지키며 살아야겠습니다.

목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왕하7:1-2)

본문은 심한 흉년이 들었을 뿐 아니라 아람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가운데 심각한 식량난을 맞게 되는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식을 먹을 정도로 심각한 식량난을 맞았습니다. 이때 드디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곡식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장관은 "아니! 하늘에 창이 생긴다고 그런 일이 있

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됩니다!"라고 엘리사에게 따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일 직접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고 한 대로 곡식을 얻어서 모두 다 잘 먹었지만 장관은 백성들에게 밝혀 주게 됩니다. 오늘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왕하7:3-8)

본문에는 왕과 한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4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여기서든 저기서든 결국 죽게 됐으니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항복하고 식량을 얻자 하고 올라가보니까 적군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람군대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보물까지 다 놔두고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

람군대에게 병거소리 말소리 큰 군대소리를 들리게 하셔서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줄로 착각하게 하심으로써 모두 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방팔방이 막 막해서 완전히 죽었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 길이 있습니다. 본문 교훈은 낙심하고 좌절해 앉아있지 않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전진 하면 적은 사라지고 식량과 금은보화까지 얻게 됩니다.

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왕하7:9-11)

문둥병자 네 사람이 도망가고 없는 아람군대들의 물건들을 다 가져와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양심에 찔렸습니다. 결국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면서 그 밤에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문둥병자들은 이 좋은 소식을 나만 갖고 있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며 달려가서 이 좋은 소식을 온 나라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알기쉬운 IT칼럼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사용하세요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IT전문선교사)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키보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삼성 폰을 사용하는 분은 삼성키보드, 혹은 구글 키보드를 사용하실 것이고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은 기본키보드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어쩌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익숙한 것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바뀌서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발전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집을 부리신다면 이렇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글로 타이핑하면 바로 영어로 바뀌주는 키보드가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나는 한글로 타이핑하는데 즉석에서 영어로 글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자 변환도 쉽고 물로 말로 글을 쓰는 것도 아주 잘 하고요.

어때요? 흥미가 나시나요? 필요가 있어야 움직인다면 아직은 하수입니다. 고수는 정보를 얻으면 일단 시도해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은 선생의 이야기를 잘 듣는 법입니다.

먼저 네이버스마트 보드를 Playstore, Appstore 에서 설치하십시오. 특별히 아이폰 사용자는 아이폰의 키보드가 워낙 단순해 정말 필요합니다. App를 동작하면 기본설정이 나옵니다.

먼저 언어추가 & 입력방식을 누릅니다. 한국어를 눌러 원하는 방식의 키보드를 선택하십시오. 보통 두벌식을 사용하실 텐데 저는 천지인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나머지는 건드리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세설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도 만지실 것은 없는데 키보드 높이는 문자 그대로 키보드의 상하 크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눌러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디자인은 문자 그대로 키보드의 디자인이니 여러분의 취향에 맞추어 선택하십시오.

모든 설정이 종료되면 우측 상단의 키보드 그림을 눌러 보면 지금 설정한 상태의 키보드가 보일 것입니다. 친절하게도 여러분이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니 하고 보여주는 것이지

요. 자 이제 설정이 끝났으면 실제 이용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제일 왼쪽의 초록색 N을 누르면 바로 네이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된 것은 이미지공유, 혹은 텍스트 공유를 선택하여 친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상단의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모티콘입니다. 네번째는 미리 입력된 문장을 선택하는 기능인데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카톡 친구가 3,000명이 넘습니다. 매일 여러 사람의 생일정보가 뜨게 되고 이들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내용을 미리 입력하고 있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이것을 누르면 오른쪽 아래에 편집이 나옵니다. 이것을 눌러 미리 입력할 수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메뉴는 맞춤법을 검색해주는 기능입니다. 문장을 완성하고 난후 실행해 보면 틀린 부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아무리 외국에 오래 살



았어도 맞춤법은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메뉴가 바로 번역기능입니다. 내가 한글로 입력하면 바로 원하는 언어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때 말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글을 쓰자마자 바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과 SNS로 혹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말 꼭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영어로 상대가 보내온 것은 어떻게 한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 그 문장을 꼭 눌러 복사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이 번역버튼을 누르고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 한글(-) 영어를 상황에 맞추어 잘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자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마이크를 꼭 누르면 한자가 보입니다. 손을 떼지 않고 한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음성으로 글을 쓰는 마이크와 한자를 사용하는 한자 키가 같은 키로 변환됩니다. 한글과 영어의 변환은 지구그림을 누르면 됩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나 혼자 잘 써야지 생각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것은 많이 나누어야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실제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나면 그만큼 더 발전하실 것입니다. 그게 나눔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sjyoon7231@gmail.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소식

SEED 선교회

본부 사역을 시작하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몇 가지만 정리해서 함께 나누며 코비드 상황에서 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코비드 상황 속에서 기도도 열방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우리를 세계선교로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계속 달려갈 뿐입니다.

저는 멤버케어 사역을 파악하기도 전에 전 세계 37개국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SEED 식구들을 위한 안전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난 몇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SEED 식구들에게 예방 수칙들과 여행에 관한 수칙들을 작성해서 보내드렸고 필요한 마스크를 2만 여장을 공급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안타까웠던 일은 아프리카 현장에서 모친 사망 소식을 접했지만 하늘 길이 막혀서 모친 장례에도 참석할 수 없었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매일 오후 3시에 70여분이 참여하시는 선교 중보 기도시간에

현장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는 중앙아시아의 지역장이신 선교사님이 확진되어 큰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선교사 사모회가 자발적으로 산소통을 구입하여 선교사님이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지역장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팀원들 방문하는 과정에 확진된 것 같습니다. 현재 거의 회복되셨지만 여전히 기침하시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폐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팔 구제 네팔의 지방에서 목회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헌물 하는 성미로 생활을 하시는데 함께 모일 수 없게 되면서 목회자 가정들이 기본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중국의 가정교회와 저의 가족들, 친구들이 헌금해서 9천불 이상을 모금해서 네팔 목회자 54가정과 일용품을 잃게 되어 기본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는 200여 가정에 한 달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지만 저들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MK(선교자 자녀) 장학금 캠페인 한 MK는 미국의 좋은 대학에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로 선택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저희

소 우려했지만 기우였습니다. 성령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줌으로도 만져주셨습니다.

재대신화관 방송사역

임승욱 사모가 GBS방송을 통해서 재대신화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의 시간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방송 다음날 업데이트 됩니다.

하와이 스테이션(미주 서부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1시-1시 30분) 벤쿠버 스테이션(미주 서부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5시-5시30분) 한국시간(매주 화요일 오전 9시-9시 30분)

GBS 앱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https://apps.apple.com/us/app/global%EB%B3%B5%EC%9D%8C%EB



SEED USA 본부에서 MK를 위한 장학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코비드 상황 속에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격려하고자 시작했습니다. MK 장학금 캠페인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이 소식지 하단에 후원방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0년 선교사 학교

매년 실시하는 선교사 후보를 위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 학교"가 올해는 온라인 훈련으로 40일간 진행되어 지난 7월 31일에 11가정이 수료했습니다. 북미와 남미, 유럽, 아프리카, 태국, 일본, 한국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30여명의 강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강의와 워크샵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매일 8시간씩 줌(Zoom)으로 진행되는 선교훈련에 다

%B0%A9%EC%86%A1/d1523103175 (아이폰 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gbsglobal.android(안드로이드 폰으로 앱다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1. 9월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신학교(중국 가정교회)에 필요한 강사진들이 순조롭게 확보되고 귀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과정이 되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2. 임태호 선교사의 건강(위)을 치유해주시도록
3. 본부의 멤버케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4. 임승욱 선교사의 재대신화관 방송사역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임태호 임승욱 선교사 이메일: ttirecon@gmail.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위문 송 트롯

바이러스 팬데믹이 반년을 넘어가며 역사와 전통과 습관을 단절시키는 낯설고 생소한 벽을 높이 세우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반가움을 나타내는 악수가 사라지고 어쩌다가 될지도 모르는 침의 사정거리를 벗어나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행하고 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들에는 '몸은 멀게 마음은 가깝게'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그 이에 대해 반발이 갈수록 하등 몸이 멀어지는 그 이상으로 마음도 멀어지는 불신은 깊어진다.

2020년의 한반도에는 최장 장마라는 다행임에 걸맞은 침수피해와 산사태도 유난했다. 태풍의 영향이 아닌 장마의 피해로는 역대급이라해도 부족하지 않을 재난이었다. 수십 년 동안 안심하며 살던 집터로 산사태가 덮쳤고 튼튼한 제방이 철통같은 방어벽이라 여기며 쏟아지는 장대비에 도 빈대떡을 붙여먹는 마을로 거센 흉풍물이 밀어닥쳤다. 지붕 위까지 차오르는 물 폭탄을 피해 맨몸으로 구명보트에 사람들이 옮겨 탈 때 우사에 갇혀 있던 소떼들은 지붕으로 피난하는 웃지 못할 진풍경도 벌어졌다.

긴병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코로나19나 청천병력과는 같은 수해는 이 땅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발등의 불이다. 더하거나 덜함도 없는 참담한 현실인 것이다. 전 세계에는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버린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7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물질문명 세계의 가장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미국은 코로나19 앞에 코가 납작해졌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미국에서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되지 않는 아이러니다. 그러나 이는 꼬집어봐야 아플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이다.

"울법이 가임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롬5:20). 섬뜩할 만큼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다. 코로나19와 참담한 수해를 예견하여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려는 듯 2019년부터 한국에서는 트롯이라는 장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미스 트롯에 이어 인기가 상승하는 중인 미스터 트롯은 위로와 위문의 대세가 되었다.

방송을 트는 채널마다 떠나 없는 인기로 트롯이 흘러나온다.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엄습한 대한민국의 암울했던 7개월을 견디게 한 것이 트롯이 아니었을까 여겨질 만큼 남녀노소 모두에게 트롯열풍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트롯의 의미는 말이 걸을 때 2박자로 걷는 보조 즉 속보를 나타낸다. 말의 발은 서로 대각선으로 들어 올려졌다가 땅에 내딛는다. 위

쪽 왼발과 앞쪽 오른발이 거의 동시에 내딛으며 그 뒤 앞쪽 왼발과 뒤쪽 오른발이 마찬가지로 움직인다. 한 쪽 발을 들어올렸다가 다른 쪽 발로 바꿀 때 발의 몸은 순간적으로 공중에 뜨게 된다. 이런 움직임과 박자를 트롯이라고 한다. 백과사전에서 설명하고 트롯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박자에 가수들의 감성이 더해져 코로나19로 숨을 죽여야 하는 사람들의 칙칙한 마음에 더할 수 없는 위로로 다가왔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올 때 진통제가 그 고통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듯 트롯은 점점 더 인성이 마비되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도 사랑, 그래도 인정, 그래도 정의, 그래도 우정을 되돌렸다.

수십 년의 삶터가 흉터물을 뒤집어 쓴 참담함으로 실의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의 수해복구현장에서는 누구인가의 입에서 슬픔에 젖은 트롯 한 가락이 울려 퍼지고 녹아버린 애간장을 토하듯 내뿜어진 트롯 한 가락이 희망가로 바뀌기도 한다. 가수 이미자가 부른 '노래는 나의 인생'이라는 가사에 '아득히 머나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 끝없이 기나긴 길을 따라 꿈꾸는 눈물도 가슴에 묻어놓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만이 나의 생명 언제까지나 나의 노래 사랑하는 당신 있음에...'

코로나19도 참담하기만 한 수해의 현실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지금의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아픔을 지우며 떠나보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래일 것이다.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긴 한숨의 애환이 늘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길 때 호흡을 고르며 다시 일어하게 하는 것은 노래일 것이다. 트롯 박자에 맞춰 인생의 희로애락이 절절하게 담긴 감성이 뿜어져 나올 때 사람들은 위로와 위문을 받게 된다. 들을 귀가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음성도 들린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시23: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121:1). 이 진리의 음성은 트롯보다 강하다. 그리고 깊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올 깜짝 놀랄 일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래야 한다. 하나님은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기뻐하신다. 코로나19도 수해도 그리고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모든 고통도 다 지나갈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hanmackim@hanmail.net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the CA region.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머무는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핼(PIM)선교회, 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선교 ... 어떻게 하고 있나?

(5) **살롬장애인선교회**

대표 박모세 목사

전 세계 소외된 장애인 “찾아내”(Search) “섬긴다”(Serve)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며 모두가 함께 아픔을 겪고 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살롬장애인선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박모세 목

사와 인터뷰를 통해 간증과 사역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숨 막히는 삶의 코너에서 부르신 주님

“8월은 우리 부부에게 특별한 달이며 잊을 수 없는 달”이라고 입을 여는 박모세 목사. 그의 간증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45년전인 1975년 8월2일 주일,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다는 박모세 목사.

“올겐에 앉아 반주하는 모습이 마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에 반해 약 2년 후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약 12년만인 1989년 8월 14일 끔찍한 불의의 교통사고로 당시 11살과 9살짜리 딸을 모두 잃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아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사지마비 장애인인 되어 손가락도 하나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대형 사고는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 충돌해 일어난 것입니다”라고 그때의 상황을 말하는 박 목사.

당시 박 목사는 그 차를 같이 타고 있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단단했던 가정은 큰 위기를 맞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박 목사를 부르셨다. 당시 박 목사는 규모 있는 수출회사에서 부장으로 잘 나가는 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는 세브란스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고 두 딸을 잃은 고통은 자신의 인생 중 가장 숨 막히는 코너에 몰린 시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운데 부르는 주님의 내적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었고 결국

박 목사는 40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다. 1999년 2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11월에 목사안수를 받은 후 12월에 박 목사와 아내는 함께 유학차 도미해 CSUN(Cal. State Univ. Northridge)에서 장애인사역을 위한 공부를 한 후 The Master's Seminary(총장 John MacArthur 목사)를 1997년 5월에 졸업했고 이후 지역교회를 잠시 섬기다가 1999년 6월 1일에 살롬장애인선교회를 설립해 지금까지 담임 사역자로 아내와 함께 섬기고 있다.

세계 열방 속에 소외된 장애인들을 “찾아내어”(Search) “섬기는”(Serve) 사역

쉽지 않은 결단과 사역자의 길이였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박모세 목사는 “비극적인 사고가 난지 벌써 만 31년이 됩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아내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

고이고 더욱이 목사로 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 날을 아이들이 천국에 입성한 날이요, 장애사역을 위해 우리 부부를 부르신 축복된 날로 기념하고 있다”고 말한다.

LA 코리아타운에서 21년째 장애인을 섬기고 있는 본 선교회는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속에 소외된 장애인들을 “찾아내어”(Search) “섬기는”(Serve)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즉,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Shalom)의 복음을 전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재활을 돕는데 있다. 그 사역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해 재활센터를 운영하며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을 위해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공급함으로써 지구촌 장애인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본 선교회가 설립되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지난 21년 간 43차에 걸쳐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전개해 총 15개국 약 68,0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선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박모세 목사 부부

장애 회원들을 만나지 못하고, 매주 드리던 목요일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다는 점이 제일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다. 또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 가정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



지난해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역을 마치고 기념촬영

21년간 43차에 걸쳐 15개국 약68,000여명에게 “사랑의 휠체어” 보내 팬데믹으로 “사랑의 양식보내기” 대체, 9월 20일 온라인 음악회 개최

니 당연히 제가 아내의 손발이 돼 살아온 것입니다. 샤워나 심지어는 대소변까지도 모두 도와야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회고하며 “31년 전 그 날(8월 14일)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장애인사역도 없었을

실제적인 도움을 줬ాయి.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사역은 쉴 수 없어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본 선교회도 피할 수는 없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매주 만나던

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후원이 예년 같이 원활하게 모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직면한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

박모세 목사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 수개월 더 지속된다면 우리 장애인회원은 영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더 큰 어

세 목사는 “많은 분들에게 낯선 온라인 음악회지만, 많이 동참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11개국, 12명의 선교사님을 돕는 이 사역이 풍성하게 채워지며,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나라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

개혁의 땀방울...

(7면에서 계속)

1990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쇠퇴하기 시작했다. 현재 교회성장은 아득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교회성장학은 한 시대의 유행으로 끝났다. 와그너와 함께 능력대결(power encounter), 즉 예수의 능력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신과 영보다 압도적임을 알림으로 교회가 성장한다고 주장하던 존 Wimber(John Wimber, 1934-1997)는 '빈야드운동'을 전개하며 한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역시 한 시대의 유행으로 끝났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유행보다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

는 것이다. 교회의 수적 부흥을 위한 노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회심시키는 일이 힘들어지자, 각 교회가 경쟁적으로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불러내는 일을 너무도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었다. 교회성장이 우상이 되었으며, 수평이동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역행하는 모습임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반

성해야 한다. 교회성장학 학자와 이론가로서 변하기 전의 맥가브란의 초심은 순수하였다. 그는 선교현장에서 그가 공부한 자유주의신학이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성경의 무오성과 절대적 권위를 믿게 되었고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기준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그 시절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

해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고백할 수 있었다. 교회성장학은 이런 초심을 사라지게 했다. 목적이 이끄는 학문으로 둔갑되자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00년의 교회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을 겸손히 수용해야 한

다. 교인 수의 증가는 영적 부흥의 열매이며, 수적으로 약했지만 성경의 진리를 지닌 자들이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왔다. 교회성장이 과거의 역사로 사라지지 않고 현대교회의 사명이 되기 위해 우리는 유행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이성자 기자)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p>추천 도서</p> <p>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신영, 시와정신사</p> <p>모두 거짓말을 한다 EVERYBODY LIES 세스 스타판스, 매드워즈, 데이스</p> <p>침묵 앤드 슈사쿠, 흥성사</p> <p>말그릇 김윤나, 카시오메아</p> <p>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리처드 탈러, 리더스북</p>	<p>회원사</p> <p>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p>	<p>후원</p> <p>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p>
--	---	---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